

청.장년 성경공부

야고보와 요한의 서신: 참된 믿음

<인도자 지침서>

글쓴이 : 켄 라일
로버트 가렛
데이비드 메이
알렌 리즌스
로니 메리엇
로니와 르네이트 후드 부부
데이비드 화이트
마이클 가프리
데이비드 스트론
마이크 하아톤

Baptist Way Press®

달라스, 텍사스

야고보와 요한의 서신: 참된 믿음

판권소유 © : 2010 BAPTISTWAY PRESS ®

모든 권리 소유.

교회사역을 위해 필요한 만큼 교회에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출판물의 복제판은 간략한 인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면을 통한 허용 없이 매매되거나 유통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BAPTISTWAY, Baptist General Convention of Texas, 333 North Washington, Dallas, TX 75246-17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APTISTWAY PRESS ®는 미 특허. 상표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개역성경, 1961 에서 했습니다.

BAPTISTWAY PRESS® Management Team

Director, Education/Discipleship Center: Chris Liebrum

Director, Bible Study/Discipleship Team: Phil Miller

Publisher, BAPTISTWAY PRESS®: Ross West

한국어 집필위원

창세기 (1과 ~ 3과) 학습공과 번역

유윤수 (뉴송침례교회)

창세기 (4과 ~ 13과) 학습공과 번역

최승오 (달라스새누리교회)

창세기 (1과 ~ 13과) 학습공과 편집

최승오 (달라스새누리교회)

한국어 집필 팀장

팻 에컨 (Pat Ekern), BGCT 교회건축센터,

초판 : 2010년 12월

♣ 이 교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는 교육 방법을 택하라.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섞어 사용해도 좋다. 각 방법은 실제로 도움을 주고, 가르칠 준비를 위해 곧바로 유용하도록 고안되었다.

각 장의 **학습계획** 주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쉽게 배울 수 있는지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침의 순서를 도와주기 위함이다. 첫 번째 주제 **‘삶과의 연결’**은 수업을 시작하여 공부할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 줄 것이다. 두 번째 주제 **‘학습인도’** 적극적으로 집중하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세 번째 **‘적용격려’**는 참가자들이 공부한 말씀을 삶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도와 줄 것이다.

수업을 시작할 때, 각 과의 첫 페이지나 **‘수업계획’**이 있는 지면에 공부하게 될 날짜를 적는 훈련에 시간을 할애하라. 수업계획표를 만들어 게시하거나 E-Mail로 수업계획표를 보내어 언제 무슨 과를 공부하게 될 지를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각 과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와주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1. 정해진 그룹 성경공부 시간보다 일주일 전에 먼저 이 책을 공부한다.
2. **‘수업계획’** 내용을 훑어본다. 목차와를 훑어보고 공부하게 될 내용이 전체의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후 공부하게 될 내용의 머리말을 복습한다.
3. **‘주제’**와 **‘탐구질문’**과 **‘학습목표’**를 숙고하면 각 장마다의 중심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4. 당신의 성경책을 사용하여 각 장의 성경본문을 기도하며 숙고하라. 각자 본인의 성경책을 사용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성경공부에 더욱 집중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유도한다.

(각 과의 **‘학습계획’**과 **‘수업계획’**들은 저자마다 다른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어떤 번역본을 사용하든지 자유롭게 비교하면서 사용하라.)

5. 성경말씀을 먼저 읽은 후에 **‘수업계획’**에 나와 있는 **‘성경주해’**를 참조하라.

(각 장의 지은이들은 각 장의 내용에 가장 충실한 성경본문을 채택했다. 물론 당신이 가장 은혜 받은 성경본문을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4. 각 장에 주워진 성경말씀을 읽은 후에, 당신의 성경공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가의 본문 해석을 읽는다.
5. 각 장에 주워진 작은 기사 - “참고” - 를 읽는다. “참고”는 추가적이고 주석적인 내용과 성령의 영감으로 당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삶의 적용까지도 도와줄 것이다.
6. 각 장에 주워진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고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라. 주어진 질문들은 당신에게 더 깊은 생각과 적용점을 제시할 것이며, 그룹 성경공부시간에도 사용될 것이다.

인도자 지침서 저자들

켄 라일은 야고보서 1과에서 3과까지의 “성경주해”를 집필하였다. 라일 박사는 텍사스 아빌렌 소재 하딘-시몬스 대학의 록스톤 신학교에서 신약과 그리스어를 가르치는 교수이다. 그는 버지니아, 서부버지니아, 켄터키, 그리고 텍사스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섬겼다. 라일 박사는 텍사스 침례교단의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나이지리아의 옥보모소에 소재한 나이지리아 침례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했다.

밥 가렛은 야고보서의 4과에서 6과까지의 “성경주해”를 집필하였는데, 그는 텍사스의 달라스에 소재한 달라스 침례 신학대학에서 선교를 가르치는 교수이다. 가렛 박사는 또한 그 대학의 글로벌 지도자 과정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그는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사로 수고하였는데,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는 Seminario Internacional Teologico Bautista에서 교수를 역임하였다.

데이비드 메이는 요한1서의 7과에서 9과까지의 “성경주해”를 집필하였다. 메이 박사는 캔사스 쇼니에 있는 중부 침례 신학대학에서 신약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또한 중서부 지역의 침례교단에서 강사와 교사로서 자주 섬기고 있다. 그는 작품에서 1세기 시대의 사회적이며 문화적인 상황에 연관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는 또한 Review & Expositor라는 침례교 일간지의 이사회의 이사이다. 그는 남서부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알렌 리즌스는 요한 1,2,3서의 10과에서 13과까지의 “성경주해”를 집필하였는데, 서부 버지니아의 헌팅턴에 있는 5번가 침례교회의 담임목사이다. 그는 또한 팔머 신학대학교의 외래교수로 섬기고 있다. 그는 과거에 텍사스와 미주리에 있는 교회들의 목사로서도 섬기었다. 그는 남서부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로니 메리엇은 야고보서의 1과와 2과의 “학습계획”을 집필하였는데, 텍사스의 허스트에 있는 웨이디옥 침례교회의 담임목사이다. 그는 남서부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메리엇 박사는 뱀티스트웨이 출판사를 위해 청소년 성경공부 교재를 집필하였고, 이번에 두 번째로 장년들을 위한 “학습계획”을 집필하였다.

로니와 르네이트 후드 부부는 야고보서의 3과와 4과를 위한 “학습계획”을 집필하였다. 로니 후드2세 박사는 텍사스의 템플에 있는 캐년 크릭 침례교회의 담임목사이다. 그는 알라바마의 버밍햄에 있는 샘포드 대학을 졸업하였다. 르네이트 비비안 후드 박사는 텍사스의 벨튼에 있는 메리 하딘-베일러 대학교에서 크리스찬학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녀는 네덜란드에서 의학대학을 수료하였다. 후드 부부는 뉴올리언스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그곳에서 로니는 교회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르네이트는 성서학과 그리스어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데이비드 화이트는 야고보서의 5과와 6과를 위한 “학습계획”을 집필하였다. 화이트 박사는 텍사스의 마샬에서 살고 있으며, 1983년부터 동부텍사스 침례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과 신구약을 가르쳐왔다. 원래 오클라호마 출신인 그는 텍사스의 남서부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종교교육학 석사와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마이클 가프리는 요한1서의 7과와 8과를 위한 “학습계획”을 집필하였는데, 텍사스의 로빈슨에 본거지를 둔 트루 코스 미니스트리 사의 이사회 의장으로, 또 트루 코스 리빙, 러닝, 리딩 사의 대표로 섬기고 있다. 가프리 박사는 전국적인 지명도와 미국 성인 평생 교육 위원회에서 우수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여하는 말콤 노울스 상을 수여하였다. 그는 남서부 침례신학대학교(종교교육학 석사)와 베일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데이비드 스트론은 텍사스의 칼리지 스테이션에 있는 제일침례교회에서 교육목사로 섬기고 있다. 스트론 박사는 요한1서의 9과와 10과를 위한 “학습계획”을 집필하였다. 그는 또한 다른 교회들에서 섬기고 있으며 텍사스에 있는 러벅 침례교단 협의회에서 교육 책임자로 있다. 그는 성서학 학사, 종교교육학 석사, 그리고 성인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마이크 하아톤은 요한 1,2,3서의 11과에서부터 13과를 위한 “학습계획”을 집필하였다. 하아톤 박사는 버지니아의 미들톤에 살고 있으며, 교육 상담가이자 인생 코치이다. 그는 버지니아의 리치몬드에서 제일침례교회의 성도이다. 퇴역군인을 위한 교과과정의 집필가로서 침례교인의 삶을 위해 여러 가지 중요한 분야에서 섬기고 있다.

야고보와 요한의 서신: 참된 믿음

인도자 지침서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

인도자 지침서의 저자들

야고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참된 믿음

	학습 일자		
1과	_____	기독교인의 삶 101.....7 야고보서 1장	
2과	_____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려면.....15 야고보서 2장	
3과	_____	믿음을 보여주는 말 - 그렇지 않은 말.....22 야고보서 3:1-12	
4과	_____	평화를 원하는가? 여기서 시작하라.....27 야고보서 3:13-4:12	
5과	_____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기.....34 야고보서 4:13-5:6	
6과	_____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41 야고보서 5:7-20	

요한의 편지들: 순수 기독교 정신의 시험

7과	_____	생명의 말씀에 중심을 둔 삶.....49 요한1서 1:1-2:2	
8과	_____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안다는 것.....57 요한1서 2:3-27	
9과	_____	확신과 함께 미래를 맞이함.....65 요한1서 2:28-3:10	

10과	_____	끝없이 사랑하기.....72 요한1서 3:11-13; 4:7-12, 19-21
11과	_____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79 요한1서 4:1-6, 13-16a
12과	_____	사랑과 믿음의 이치로 사는 삶.....86 요한1서 5장
13과		하나님의 사역을 지혜롭고 풍성하게 후원함.....92 요한2서 1-2, 7-11, 요한3서 1-11

[제 1 과]	그리스도인의 삶 101
<p>핵심본문 야고보서 1장</p> <p>배경 야고보서 1장</p>	<p>학습주제 참된 믿음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행동을 요구한다.</p> <p>탐구질문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진실한가?</p> <p>학습목표 야고보서 1장에 있는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설명대로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야고보의 편지는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주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독교인의 삶의 엄격함에 대한 야고보의 실제적이면서도 직선적인 표현은 기독교인들로부터 다양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1552년에, 야고보는 “한 가닥 지푸라기 같은 서신”¹⁾을 작성했다고 하는 마르틴 루터의 악의적인 주장은,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에 대하여 그가 갖고 있는 편견을 보여주고 있다. 루터의 주장은 특별히 은혜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는 교회들 사이에서 야고보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갖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 학자들은 야고보서를 paraenesis 혹은 간곡한 권고로서 편지의 문학적 특성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학문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Paraenesis는 1세기 당시에 글을 쓰는 일반적인 형식이었다. 정형화된 형식과 기능이 있었다. 기능적인 면에서 paraenesis는 이미 믿는 자들에게 자신들의 믿음대로 살도록 격려를 해주는 것이었다. 작가들은 간곡한 권고와 격려를 하기 위하여 paraenesis를 사용하였다. 형식적인 면에서 paraenesis는 특별한 형태와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동사의 명령형, 비평조의 연설(상상해서 만들거나 혹은 대표적인 논쟁과 같은), 널리 알려진 속담, 그리고 선과 악의 개념들을 사용하였다. 이런 요소들은 모두 주제의 구성을 위하여 연결되어 있다.²⁾

일부 성경 주석가들은 야고보서의 기본 내용이 순수한 유대인의 배경 속에서 구성되었다고 제안하고 있다. 기독교 작가들은 자신이 속한 기독교 공동체에 윤리적 행동을 권고하기 위하여 단어들을 사용하였다. 편지에서 예수님은 단지 두 번만 언급되었을 뿐임을 주목하라(야고보서 1:1; 2:1)

보다 더 일반적인 견해로는 야고보서를 예언자적 지혜가 담긴 문학의 한 종류라고 보는 것이다. 예언자로서의 야고보는 부드럽지 않은 권고와 교화의 가르침을 제안한다. 야고보서의 108개 구절에는 약 50개의 직접적인 명령이 들어있다. 야고보서에는 예레미야, 나단, 아모스 혹은 예수님과 같은 예언자의 소리가 들린다. 지혜의 문학으로서 야고보서는 때때로 실제적인 결과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잠언과 같은 소리를 낸다. 전통적으로 지혜는 지적인 능력으로서의 지혜와는 주로 관련이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서의 지혜와 관련이 있다. 기독교적으로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으로서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본문 해석

서론 (1:1)

강한 어조를 띤 이 편지의 서두에 있는 인사말은 일반 편지처럼 단순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원래 편지라는 것을 증명하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작자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³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호칭은 야고보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제기한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영어식 표현인 “야고보”라는 이름은 신약성경에서 4명의 서로 다른 인물을 나타내고 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마 4:21);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눅 6:16);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마 13:55); 그리고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마 10:3). 헤롯 아그립바 왕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처형시켰다(행 12:1-2). 교회가 확장되던 초기에 일어난 그의 죽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이 서신서의 저자라고 보기에 어렵게 하고 있다. 남은 선택들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만이 초대 교회에서 글을 쓸 때,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야고보가 예수님과 가깝게 관계에 근거해서 권위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 혹은 노예라고 자신을 표현했다는 것이다.

야고보는 편지를 “흠어져 있는 열두지파”에게 쓴다고 했다. “흠어져 있는”이라는 표현은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진 유대인들의 망명과 이민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구절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정체에 대해서 확실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편지의 다른 요소들과 함께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유대인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다. 2:2절에서 야고보는 회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회중”을 언급하고 있다. 이 “회중”은 유대인의 전통에 익숙하고 또 전통을 잊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다. 수신자들은 유대 그리스도인 모임인 것 같다. 예루살렘 교회와 야고보의 연합,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에 대한 그의 헌신(사도행전 15장과 21장을 보라)을 통해서 볼 때, 이 모임은 팔레스타인 배경 속에 있는 것 같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야고보의 “흠어져 있는”이라는 표현은 이상한 상황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팔레스타인 밖으로 흠어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동족으로부터 피난하였던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격려의 말이 필요하였다.

시험이 인격을 형성한다 (1:2-4)

1:2-4. 야고보는 자신의 권고를, 그리스어 peirasmon을 번역한 “시험”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였다. 1:13-15절에서 대부분의 영어 번역들은 시험(유혹)이라고 하면서 같은 단어를 번역하였다. 중요한 차이는 peirasmon이 어떻게 경험되어지느냐에 있다. 시험은 긍정적으로 마주했을 때, 점차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외부의 고난이다. 시험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성숙을 만들어내니, 야고보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바로 기뻐해야 할 이유였던 것이다. 반대로 시험(유혹)은 타락하게 하는 내적인 욕망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1:13-15에 있는 야고보의 주장을 보라). Paraenesis의 특징은 이러한 진행과정이 독자들로 하여금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진행과정의 내용들을 충만하게 하도록 초대하는 것이다. 우리 각자는 제시된 진행과정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부분들을 인식할 수 있다. 각자의 경험은 다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같다 - 견뎌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잘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

하나님의 지혜 (1:5-8)

지혜를 간구하라는 권고로 전환하는 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부분적으로 “지혜”는 잠언이나 다른 지혜 문학에서 나타나는 전통적인 실용성의 일반상식을 언급한다. 더욱 중요하게도 이 구절은 하나님의 지혜 -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 (3:17)라고 부르고 있다 - 와 인간의 지혜(고전 1:18-25)와의 성경적인 구분을 생각하게 한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한 슬기로운과 관계가 없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인식하도록 알려준다. 야고보가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한 충고는 솔로몬의 이야기(왕상 3장; 대하 1장)를 생각나게 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받았다. 또 다른 측면에서 야고보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바람에 밀려가는 바다의 물결” 같다고 표현하였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표현하는데 비슷한 상상력을 적용하였다(유다 12-13).

이 구절들의 마지막에서 의심하는 자를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1:7-8). 이 표현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한 바울처럼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을 생각나게 한다(빌립보서 3:12-16). 이러한 비교는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임을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겸손한 자세와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겸손히 의존 (1:9-11)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의 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식하는 것이다. 야고보는 편지의 이 부분에서 중요한 주제를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는 우리 개인의 경제적인 혹은 사회적 지위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야고보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모두에게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라고 격려하고 있지만 -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 가혹한 심판은 부한 자에게 내려진다. 그들의 상태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부유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야고보의 강력한 경고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와 비슷한 것이다(마 19:23). 우리의 경제적인 혹은 사회적인 지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겸손히 의존하는 것만이 최고의 것이 된다. 게다가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들을, 야고보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장을 통해서, 야고보는 독자들이 자신의 권고를 상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자연에서 시각적인 실례들을 가져왔다.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과 같다. 부유한 자는 들판의 시들은 꽃과 같다.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야고보는 욕심을 임신과 출산의 과정으로 비교했다. 보다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야고보는 참된 신자들을 “그 피조물 중에 첫 열매” 라고 표현했다.

시험(유혹)을 거절하기 (1:12-18)

1장의 중심부에서는 시험과 타락한 욕망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반응이라는 주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시험과 시험(유혹)으로서 peirasmon의 중요한 차이는 고난에 대한 반응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시험(유혹)이 내부에서 오는 것인 한편,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다. 시험은 인격 형성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시험(유혹)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1:12-16. 두 가지 경우 모두에 적용되는 권고는 인내다. 이 경우에 인내는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야고보는 어떤 사람들은 시험(유혹)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선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타락으로 이끄는 시험(유혹) 사이의 연결고리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야고보는 시험(유혹)이 조절할 수 없는 인간의 욕망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야고보는 생명체라는 강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험(유혹)이 잉태, 출산, 성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비교하였다.

1:17-18. 타락하는 욕망과 대비하여 야고보는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었다(1:17).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 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구절은 창조주, 부양자, 그리고 피조물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요약하고 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신 빛의 아버지가 되신다. 1:15절에 있는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죄의 잉태와 출산과 대조적으로, 여기에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지혜의 전통에서처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말을 절제하기 (1:19-21)

야고보는 이 부분에서 다른 중요한 주제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뒤에 가서 확장되게 된다(3:1-5).

야고보는 몰지각하게 듣는 것으로 시작해서 적절치 못한 성냄으로 끝나는 부정적인 진행과정 속에서의 말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 야고보는 또한 듣는 행위가 상대적인 위치에 있는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과, 그것은 결국 더욱 중요한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야고보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듣는 것보다 행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 야고보가 가치를 두고 있는 듣기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중심이 있다. 야고보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한 “온유함”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축복을 생각나게 한다(마 5:5). 두 가지 경우 모두 온유함은 말을 조정하는 사람의 지시대로 야생마의 힘을 조절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말씀”에 의해 조정되는 것은 단지 시작한 것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 (1:22-27)

1:22-25. 야고보는 1절을 들음과 행함에 대하여 강력한 단어들로 결론을 맺고 있다. 이 마지막 단어들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듣고 행할 필요가 있음을 기억하게 한다. 이 단어들이 참된 종교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아마도 야고보의 핵심적인 권고일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듣고 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야고보는 하나는 갖고 다른 하나를 버리려고 하는 것은, 거울 속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서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가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비교한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에 대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아첨하는 혹은 너무 비평적인 그림 - 우리가 진짜로 누구인지에 대한 부정확한 평가를 하는 그림을 떠오르게 한다. 야고보는 우리가 행함이 없이 말씀을 듣기만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실제 모습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잘못 상상하고 있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반대로 야고보는 우리를 자유롭게 행하도록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행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다(약 2:12; 갈 5:13-26).

1:26-27. 야고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1장을 결론짓고 있다. 야고보에게 있어서 참된 종교의 핵심은, 우리가 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야고보는 구약성경의 예언자적 전통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예언자적 권고들처럼, 야고보는 여기에서 예언자 미가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미가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미 6:8). 게다가 더욱 강한 어조로 야고보는 누가복음 4:18-21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천명한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행한 예수님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간다.

교시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스콧은 최근에 소방학교를 마치고 위생병의 임무를 받았다. 첫 출근하던 날, 어떤 집에 큰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소방대장은 위생병에게 잔디밭에 누워 있는 한 여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스콧은 심폐소생술을 알고 있었고, 실시하는데 자신감이 있었으며,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었다. 그렇지만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순간, 스콧은 겁이 나서 소방대장의 명령을 못들은 체 했다. 그는 환자를 지나쳐버리고 다른 위생병에게 그 환자를 돌보게 했다. 환자에게 있어서 스콧의 지식은 무슨 이익이 되었나?라고 질문한다. 그리고 나서 행동이 따르지 않는 지식이나 확신은 무슨 유익이 되는가?라고 질문한다.
2. 오늘 수업으로 야고보서에 대한 학습이 시작된다고 설명한다. 야고보서는 행동하는 믿음을 요구한다. 야고보는 이런 질문으로 유명하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증명할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성경 공부 안내

3. 학생용 공과에 있는 이 내용을 게시한다:
[사각형 안에 넣는다]
그리스도인의 삶 101(야고보서 1장)
 1. 무신론자에서 신자로(1:1)
 2. 참아라(1:2-4)
 3. 단서가 없을 때(1:5-8)
 4. 당신의 재산을 의존하지 말라(1:9-11)
 5. 유혹에 빠지지 말라(1:12-18)
 6. 처방은 약을 먹지 않으면 도움이 안 된다(1:19-27)[끝]
4. 게시물의 1번을 언급한다. 야고보서 1:1절을 읽는다. 학생용 공과의 “야고보서의 소개”와 인도자 지침용의 “본문 해석”에 있는 내용을 사용하여, 야고보가 누구인지 간략하게 설명한다.

5. 계시물의 2번을 언급한다. 퍼즐처럼 시험을 정의하는 단어들을 말하도록 한다. 이 단어들을 칠판에 적는다. 한 사람에게 야고보서 1:2-4절을 읽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시험을 열거하도록 한다. 칠판에 적는다. 각각의 시험에 특별히 도움을 주는 그리스도인이라 어떤 것인지 질문한다. 1:3절에 있는 “인내” 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말해 보도록 한다. 시험이 어떻게 인내를 키워나가는지 질문한다.
6. 계시물의 3번을 언급한다. 자원자에게 야고보서 1:5-8절을 읽게 한다. 시간을 주고 다음의 질문에 답하도록 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왜 어려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다음에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두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 때문에 잘못된가? 인도자 지침용의 “본문 해석” 에 있는 내용을 사용하여 도움이 되도록 설명한다.
7. 계시물의 4번을 언급한다. 야고보서 1:9-11절을 읽게 한다. 필요하다면 학생용 공과와 인도자 지침용의 “본문 해석” 에 있는 내용들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8. 계시물의 5번을 언급한다. 야고보서 1:12-18절을 읽도록 한다. 학생용 공과와 인도자 지침용의 “본문 해석” 에 있는 내용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9. 야고보서 1:19-21절을 읽는다. 무엇이 당신을 화나게 하는가?라고 질문한다. 그리고 화내는 것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가르치고 있는지 질문한다. 대답들을 칠판에 적는다. 왜 야고보는 듣기, 말하기, 그리고 화내는 것을 도덕적 부정과 악을 없애는 것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지 논의하도록 한다.
10. 학생용 공과의 1과 앞부분에 있는 예화를 언급한다. 야고보서 1:22-27절을 읽는다.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진실을 보는데 도움을 주는지 설명한다. 거울 속에서 우리는 모든 주름과 모든 흉터, 모든 화장의 흔적을 볼 수 있다. 만약 거울 속에 이상한 점이나 사마귀가 보인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본다. 성경이 어떻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지 물어본다. 성경이 우리자신 속에 있는 문제를 보여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한다.

적용 격려

11. 학생들에게 1장에서 야고보가 말한 삶의 주제들을 돌아보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열거한 각 주제들에 대하여 야고보가 제시하고 있는 가르침을 나누도록 한다. 그 가르침을 칠판에 적는다. 각자에게 이번 주에 각자가 싸우고 있으면서 야고보의 가르침을 적용할 삶의 주제를 구체화하도록 도전한다. 기도로 마무리한다.

¹ Preface to Luther's first edition of the German New Testament (1522), cited in James Hardy Ropes,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of St. James,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16), 106.

² Harold S. Songer, "James." The Broadman Bible Commentary, vol.12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Press, 1972). 101-102.

³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다면, 1-3과와 7-9과에 인용된 성경은 개역개정판을 사용한 것이다.

[제 2 과]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려면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야고보서 2장</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야고보서 2장</p>	<p>학습주제 그리스도인은 종교에 대하여 믿고 있는 것에 의존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비와 친절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p> <p>탐구질문 아무런 선한 일도 하지 않는 믿음이 무엇이 유익한가?</p> <p>학습목표 다른 사람들을 향한 나의 행동이 나의 믿음의 참됨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는지 고려하도록 한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야고보서 2장에서는 신자들이 자신들의 믿음 위에서 행동하도록 격려하려는 의도로써 다양한 주제를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과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paraenesis*는 의사소통하는 기술인데, 한 사람을 어떤 특정한 위치로 바꾸려고 설득하기 보다는, 오히려 준비된 사람에게 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미사여구를 사용하는 설득이 아니라 권고이다. 이번 장에서 야고보는 1장에서 소개된 몇 가지 주제를 간략하게 사용하여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련의 관계성에 대한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야고보서는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약 2:1-7);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2:8-13);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2:14-26). 각각의 주제에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관계가 참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도록 명령하고 있다.

이 본문을 해석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두 가지 주제를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첫째로, 야고보는

논쟁에 있어서 통렬한 비평이라는 형태를 광범위하게 사용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야고보 자신이 반대편의 입장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비평을 읽을 때, 논쟁의 쟁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가인 야고보인가? 또는 야고보의 반대편인가? 게다가 이런 대화는 다른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의 논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확한 표현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친구 또는 가족과 논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 나중에서야 완벽하게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라. 이것이 바로 비평의 핵심이다.

주목해야 할 두 번째 문제는, 2장에서의 논쟁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구약성경의 아브라함과 라합이라는 인물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예제나 형식을 찾기 위해 구약을 주로 이용하였다는 사실이다. 신약의 몇몇 저자들은 아브라함을 자주 인용하였는데, 각 저자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서로 다른 관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영웅이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표현했다(로마서 4:11-12).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라합 모두 자신들의 믿음을 진정으로 나타내었다고 표현했다. 이런 형식의 사용은 야고보서 2장에서 중요한 관점이 된다.

본문 해석

사람들과의 관계 (2:1-7)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사람들과 갖는 관계는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게 된다. 간략히 말하자면, 지위나 권세 있는 사람들을 향한 편애주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다.

2-1. 야고보의 반어적 질문은 부정적인 대답을 가정하게 한다. 편애주의에 기초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을 수 없다. 여기에 2장에서 말하는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 - 올바른 원리와 올바른 행위 사이의 중요한 관계에 대한 첫 번째 단서가 있다. 1장에서 보았듯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참된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을 요구한다(약 1:22). 여기에서 말씀을 행하는 것은 편견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향하는 것을 요구한다.

2:2-5. 야고보가 제시한 첫 번째 상황은 교회 또는 “회당”에서 나타나는 차별의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 야고보가 제시한 상황은 1세기 시대에 관심이 대단했던 후원자와 고객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존경과 수치의 문제였다. 간단히 말해서, 명예와 특권에 대한 1세기의 관점은 주변에 명예와 특권이 너무 넘쳐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더 갖게 되면 다른 사람은 덜 갖게 되어야 했다. 대부분의 사회 상황 속에서 가난한 사람은 아무런 특권이 없는 반면에 부자는 최고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

이에 대하여 야고보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관점을 갖고 계시다고 확신을 갖고 주장하였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충분한 명예와 특권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들의 머리 속에 있는 전통적인 기대치를 바꾸셨다 -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선택하셨다(2:5).

야고보가 제시한 위치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에게 주어진 문제이다. 21세기에서 교회가 어떻게 지위와 명예를 지켜나갈 것인가? 편애주의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는 것인가? 명예와 특권이 우리의 지역 교회에서 보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접근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2:6-7. 여기에서 야고보는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경고를 주는 것으로 화제를 바꾸고 있다. 교회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비용에서 사회적인 가치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상식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부자들과 그들의 가치-대상에 대한 잘못된 존경심-는 교회가 그것들과 갈등을 빚을 때 교회에 가장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 야고보는 그들이 “억압하며” 고소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아닌지 신랄하게 물어보고 있다. 야고보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세상의 가치에 의해 너무 영향을 받는 그 어떤 시대에 있는 교회 사람들의 고집센 경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 (2:8-13)

이번 단락에서 중요한 해석상의 특징은 야고보가 이해하고 있는 “율법”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 본문에서 “율법”은 무엇을 뜻하는가? 분명히 토라(구약의 율법) 전부-할례의 요구, 적법한 음식 규정을 지키기, 또는 경건한 행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오히려 야고보는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마 22:34-40; 막 12:28-34; 눅 10:25-28)에 대하여 강한 호감을 보여주고 있다.

2:8-9. 흥미롭게도 야고보는 하나님에 대한 독자들의 사랑은 인정하지만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훈계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수평적인 측면의 마음이 사랑에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두 개의 중요한 계명-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은 십계명에 표현된 책임감에 아주 잘 어울린다(출 20:1-17; 신 5:6-21). 제1에서 제4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책임을 묘사하고 있고, 반면에 제5부터 제10 계명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묘사하고 있다. 야고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지만, 그러나 차별과 편애는 율법으로 하여금 우리를 죄인으로 저주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2:10-13. 야고보는 율법의 일부를 범하는 것이 율법 전체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십계명에 나오는 간음과 살인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그 원리는 이런 금지된 행위의 너머에 까지 이르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야고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에게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하고 또 행동하라고 권고하고 있다(약 2:12; 1:25절을 보라). 1장에서처럼 야고보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자유를 주는 율법을 말하고 있다. 13절에 있는 심판과 자비의 관계는 자비가 심판을 능가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대리인이다.

믿음과 행위의 관계 (2:14-26)

2장을 강력하게 결론지으면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하여 비평의 형태를 적용하였다. 게다가 야고보는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으로 구약의 인물들을 사용하였다. 17절의 시작 부분과 26절에 있는 논쟁의 최고점에 표현된 기본 원리는 바로,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2:14-17. 비평은 야고보가 자신의 상상 속의 반대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행위가 없는 믿음이 무엇이 유익하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약 2:14)라는 야고보의 예리한 질문은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바울의 요점과는 다르게 보인다(엡 2:8-9).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서 2:10절에서 한 주장과 야고보가 여기에서 하는 주장은 거의 동일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하도록 믿음으로 창조된 사람들이다! 야고보는 교회 생활에서 위로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제로는 위안을 주지 않는 너무나 참된 예를 들어서 이 원리를 강력하게 표현하였다.

2:18-20. 비평의 두 번째 부분은 야고보의 상상 속의 반대자들에 대한 질문과 야고보의 답변을 포함하고 있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반대자들의 진술은, 정확한 원칙 또는 가르침에 온전히 의존하여 행위가 없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야고보는 귀신조차도 쉼(“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신 6:4)를 암송할 수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약 2:20).

2:21-26. 야고보는 바로 이어서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구약의 아브라함(2:21-24)과 라합(2:25)의 예를 설명하고 있다. 야고보와 신약의 다른 저자들은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을 인용하였는데, 이는 미국 시민들이 특별한 자질과 특성을 대표하는 실제적이면서도 역사적인 인물인 조지 워싱턴과 아브라함 링컨을 인용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워싱턴을 건국의 아버지로 회상할 것이고, 다른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줄 몰랐던 소년인 링컨의 정직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신약의 다른 저자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서로 다른 관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야고보는 여기에서 바울이 사용한 아브라함의 동일한 특성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관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갈 3장; 롬 4장),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았다” (약 2:21)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2:22).

도움이 되는 구분은 바울이 분명하게 주장한 할례라는 표면적 행위는 아브라함의 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오게 된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는 것이다(롬 4:3; 창 15:6; 롬 4:3; 갈 3:6-14). 야고보도 이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약 2:23), 그러나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의로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기생인 라합의 예는 그녀의 행위로 인해 의롭게 되었다는 한 개인의 도전적인 예를 제공하고 있다.

바울과 야고보를 융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그들의 주장을 생각해 본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둘 다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야고보서 2:26절은 2:17절에서 시작된 주장을 마무리하고 있다.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고 절묘하게 지적하고 있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학생용 공과의 수업을 소개하는 부분에 있는 릴리 버진과 미션 알링턴의 이야기를 해준다. 더 자세한 정보와 학생들에게 보여줄 사진은 www.missionarlington.org를 참조한다.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참여하거나 또는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단체 또는 사역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한다.

성경 공부 안내

2. 야고보서 2:1절을 읽는다. 야고보는 차별을 나타내는 습관을 기르지 말라고 독자들에게 명령하고 있음을 말한다. “차별” 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얼굴을 들어올리다라는 뜻이 있다.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논의한다. 모든 사람들이 환영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한다.
3. 학생들이 다음의 단어들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을 나누도록 한다: 노숙자, 변호사, 백만장자, 문신, 바디 피어싱, 가난, 유명인, 이방인. 질문한다, 이러한 단어들에 대하여 당신이 느끼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느끼는

방식에 대하여 사회는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한 사람에게 야고보서 2:1-7절을 읽게 한다. 무시당했다고, 탈락되었다고, 버려졌다고, 또는 차별 당했다고 느꼈던 때를 나누어본다. 이런 경험을 가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한다. 교회 안에서 차별을 보이는 것이 왜 해로운지 논의한다. 야고보가 쓴 편지의 독자들은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었음을 설명한다. 질문한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부자를 더 좋아하고 자신들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은 무시하게 한 것이 무엇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4. 한 사람에게 야고보서 2:8-13절을 읽게 한다. 2:8절에 있는 “최고의 법”을 언급한다. 자원자에게 마태복음 22:37-40절을 읽도록 한다. 칠판에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가장 위대한 계명을 쓴다. 그리스도인이 보여주는 차별이 어떻게 “최고의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한다. 학생용 공과와 인도자 지침용의 “성경 주해”에 있는 더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한다. 2:10-11절을 언급한다. 결혼 서약을 말한다, 나는 언제나 신실할 것을 서약합니다. 응답을 요구한다. 13절의 의미를 논의한다. 어떻게 “공홀이 심판을 이기고”가 되는지 논의한다.
5. 학생들에게 학생용 공과의 “믿음과 행함(2:14-26)”의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네덜란드 텔레비전 방송인이 빌리 그래함에게 했던 질문에 대답하도록 인도한다. 같은 곳에 나오는 척 콜슨이 한 이야기도 언급한다. 한 사람에게 야고보서 2:14-18절을 읽도록 한다. 자원자에게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낸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하도록 한다.
6. 한 사람에게 야고보서 2:18-26절을 읽게 한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라합과 정탐꾼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다. 이 두 이야기가 믿음을 나타내는 행함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질문한다.
7. 한 사람에게 로마서 3:28절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갈라디아서 2:15-16절을 읽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그 말씀들로부터 믿음에 대하여 간략하게 진술하고 칠판에 적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야고보서 2:18-26절의 내용을 살펴보고 믿음에 대하여 간략하게 진술하고, 칠판의 첫 번째 표현 밑에 쓰도록 한다. 이 표현들이 서로 반대가 되는지 또는 보완이 되는 것인지 질문한다. 학생용 공과와 인도자 지침용의 “성경 주해”에 있는 내용을 사용하여, 바울은 의에 대하여 기록하였고 야고보는 참된 믿음의 결과에 대하여 기록한 것임을 설명한다. 왜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지 질문한다. 학생들에게 모든 본문 말씀의 의미를 나타내는 제3의 표현을 하도록 인도한다(예를 들어, “우리는 믿음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준다”).

적용 격려

8. 학생들이 야고보서 2장에 반응하여 행함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해보도록 인도한다.

9. 수업에 앞서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가족의 이름을 찾아본다(교회 사역자, 선교위원회, 또는 자선단체에 물어본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쉽다고 말한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행동을 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학생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가족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도록 인도한다.

[제 3 과]	믿음을 보여주는 말 - 그렇지 않은 말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야고보서 3:1-12</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야고보서 3:1-12</p>	<p>학습주제 말에는 힘이 있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과 참됨을 나타내는 척도로써 작용한다.</p> <p>탐구질문 당신의 말은 당신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에 대하여 무엇을 나타내는가?</p> <p>학습목표 내가 입으로 하는 말과 글로 쓰는 말이 나의 믿음에 대하여 무엇을 보여주는지 확인하도록 한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야고보서 3:1-12절은 앞에서 암시를 주었던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 말을 절제하기(야고보서 1:19,26절을 보라). *Paraenesis*의 형식과 내용(1과와 2과의 “배경 이해”를 본다)에 알맞게, 야고보는 제1장에서 간단히 소개된 이 방법을 끄집어내어 강화시켰다. 우리는 야고보가 전적으로 말의 파괴적인 힘에만 초점을 맞추었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주제는 말의 힘이 선과 악 모두에 작용하는 것이라는 데 있는 것 같다.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선한 것이 나온다. 그러나 사람을 저주하는 것과 악한 것도 나온다.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야고보는 말의 권세가 주로 악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낸다고 말한다. 쓸데없는 말, 아무 생각 없는 대화, 또는 상호비방 같은 것들은 혀의 파괴적인 권세를 묘사한다. 이 시점에서 야고보는 들음과 행함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제 야고보는 특별한 종류의 행함, 이름하여 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말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본질과 참됨에 대한 강력한 지표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이 단락을 통해서 야고보는 자연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광범위하게 사용했다. 야고보가 살던 1세기 당시의 청중들은 재갈을 물린 말, 사공이 조종하는 배, 불타는 숲, 그리고 더러워진 깨끗했던 샘들의 형상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것들은 경험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상상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형상들은 강력하게 상상이 되고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각각의 역할은 말의 권세에 대한 야고보의 주제를 강화시켜주고 있다.

본문 해석

3:1-2a. 야고보는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로써 혀의 권세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고 있다. 야고보는 직관적으로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선생들이 말과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선생이 하는 말은 신중해야 하고, 절제가 있어야 하고, 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믿는다. 선생은 정보를 나누어주고 행동을 고무시키기 위하여 말한다. 야고보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3:1). 이 말은 고린도전서 1:17절에서 바울이 한 말을 생각나게 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칭례를 베풀게 하려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으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소명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바울은, 또한 이러한 소명에 첨부된 추가적인 시험을 인식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야고보처럼 바울은 개인적인 조롱거리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오히려 실수, 실족, 또는 실언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권세”를 헛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중요한 관심을 두고 있다. 우리 선생들은 우리가 잘못된 말로 인해서 세상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사역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해야 한다.

3:2b-5a. 말을 함에 있어서 매우 일반적인 실수가 있다는 것은, 야고보로 하여금 사람이 실수를 하지 않고 살 수도 있다는 흔치 않은 가능성을 생각나게 하였다. 야고보는 혀의 권세를 설명하기 위해 두 개의 강력한 형상을 사용했다. 말을 함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사람은 말에게 성공적으로 재갈을 물린 사람과 같다는 것이다. 입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작은 도구가 커다란 동물을 조종한다. 야고보가 한 말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5절에서 하신 말씀을 반영하는데, 온유한 자는 잘 길들여진 말과 같다는 동일한 배경을 보여준다. 야고보의 요점은 분명하다 - 혀는 육체의 행동을 조종하고 선한 일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그리고 비극적으로 혀는 악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곤 한다. 야고보는 1:26절에서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혀에게 “재갈”을 물려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였다. 3장에서 혀는 큰 짐승의 행동을 조종하는 입 안의 작은 도구인 재갈이 된다.

마찬가지로 작은 키에 의해 조종되는 큰 배의 형상은(약 3:4), 어떻게 작은 도구가 커다란 배를 조종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우리는 안전한 항해를 상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야고보는 우리로 하여금 키를 아무생각 없이 사용하는 것이 배를 난파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한다. 이 두 가지 형상은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3:5)라는 야고보의 관점을 확고히 하기 위해 함께 작용한다.

이들 형상의 상호작용은 대단하다. 혀에게 재갈을 물려야 하지만(1:26), 그러나 이번에 혀는 커다란

동물을 조종하는 작은 도구와도 같다(3:3). 이런 관점에서 야고보의 주장은 혀가 말과 행동을 조종할 수 있다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것은 말의 파괴적인 권세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3:5b-12. 야고보는 하나의 작은 불꽃이 숲을 태운다는 강력한 형상을 제시하면서 혀가 곧 불과 같다고 한다(3:6)! 자연에서 가져온 형상은 말의 파괴적인 권세를 묘사하고 있다. 불로 인한 참상을 경험한 사람은 불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무자비한 것임을 알고 있다. 조종이 되지 않는 혀도 파괴의 도구가 된다. 여기에서 야고보는 조종이 되지 않는 혀에게서 어떠한 긍정적인 면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한다. 혀는 “불의의 세계라...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는” 것이다(3:6). 야고보는 모든 종류의 동물을 길들일 수 있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혀를 길들이는 것은 소망이 없다고 한다.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 이다(3:8). 우리가 하는 말에서 어떤 유익한 것도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야고보는 동일한 혀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3:9-10).

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위선적인 말에 대한 분명한 경우를 알고 있지만, 악의적인 저주를 늘 마음속에 품을 필요는 없다. 야고보 자신은 단순히 게으른 말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상황을 그려보고 있다. 2:15-16절에서 야고보는 성실함이 없는 축복의 말에는 신실한 친절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 동일한 입에서 나오는 축복과 저주. 험담이 우리 교회의 복도를 채울 때, 또는 더 안 좋게 중보기도가 소문과 풍문을 퍼뜨리는 경우가 될 때, 축복과 저주는 한 입에서 나온다. 상대방에 대한 빈정거림과 험담은 유머가 사이를 갈라놓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할 때,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다.

야고보는 혀의 권세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자연으로부터 빌려온 두 개의 다른 형상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썸과 무화과나무 또는 포도나무. 우리가 마치 한 썸이 단 물과 쓴 물을 내거나, 또는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또는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 맺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다(3:11-12).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의 형상은 예수님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마 7:16-18; 눅 6:43-45)라고 하신 가르침을 연상시킨다. 예수님처럼 야고보는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행동에는 말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야고보의 이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들은 바대로 행하라! 믿는 바대로 되어라! 여기에 우리가 첨가할 수 있다면, 말하려거든 올바르게 말하라!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수업 시작 전에, 포스터 또는 칠판을 준비한다. 제일 위에 큰 글씨로 다음과 같이 쓴다: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격려의 말.” 수업 중에, 질문한다, 매일의 삶, 말하는 것,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쇼핑하는 동안에 사람들과 교제할 때, 당신에게 가장 격려가 되는 말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대답을 칠판에 기록한다. 몇 명의 학생들에게 대답할 시간을 준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격려하는 말들이 얼마나 다른지에 주목한다.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해야 하고, 그러한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주님께 민감해야 하는 것을 배운다.

성경 공부 안내

2. 이 내용을 게시한다.

[사각형 상자에 넣는다]

I. 가르침의 위험 (약 3:1-2)

II. 혀의 권세 (약 3:3-9)

III. 입의 이중성 (약 3:10-12)

[끝]

3. 한 사람에게 야고보서 3:1-12절을 읽도록 한다. 읽기 전에, 학생들에게 이 본문 속에서 “입”과 “혀”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세어보도록 한다. 대답하도록 기다린다. (학생들은 아마도 대략 여섯 번이라는 대답을 찾게 될 것이다.) 질문한다, 겨우 12구절의 말씀 속에서 이들 단어가 자주 나오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중요성에 대하여 무엇을 말해주는가? 대답할 기회를 준다.

4. 학생들이 개요에 집중하게 한다(2번을 보라). 가르침은 개요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혀와 입을 사용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교회의 교사에게 있어서 진실의 중요성과 말의 권세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다. 학생용 공과의 “가르침의 위험(3:1-2)”과 인도자 지침서의 “성경 주해”에 있는 내용을 사용한다. 또 다음 본문들과 함께 신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사와 가르침에 대한 간략한 개관을 제공한다: 행 2:42; 롬 2:21-22; 고전 12:27-28; 엡 4:11-13; 골 3:16.

5. 학생들에게 야고보서 3:1-12절을 살펴보고 본문에서 사용된 다양한 묘사들을 말하게 한다(말의 입에 물린 재갈; 배의 키; 산불; 동물 길들이기; “단물과 쓴물”을 내는 샘;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질문한다, 야고보가 자신의 서신에서 사용했던 것들을, 오늘날에는 어떤 현대적인 묘사를 사용할 수 있겠는가? 대답할 시간을 준다. (예: 아주 조그만 칩이 복잡한 로봇과 컴퓨터를 조종할 수 있다.) 학생용 공과에서 나오는 내용을 사용하여 야고보서 3:1-12절에 있는 묘사의 관점을 설명한다.

적용 격려

6. 학생용 공과에 있는 질문에 주목하게 한다. 학생들이 2, 3, 그리고 5번 질문에 응답하도록 격려한다.

7. 기도로 마무리한다.

¹ www.baptiststandard.com/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10210&Itemid=193.에서 침례교 표준(2009년 10월 16일)에 있는 “인터넷 소문 퍼뜨리기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는가?”를 보라. 2010년 4월 29일에 입수함.

[제 4 과]	평화를 원하는가? 여기서 시작하라.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야고보서 3:13-4:12</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야고보서 3:13-4:12</p>	<p>학습주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동들은 갈등을 초래하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다.</p> <p>탐구질문 우리의 이웃들과,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p> <p>학습목표 나의 이웃들과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나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동들을 파악하기</p>

성경주해

배경이해

야고보서는 당신의 믿음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실질적인 조언으로 가득 차 있다. 야고보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읽기에 어려운 책이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왜냐하면 개념들이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구체적인 습관과 태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3장은 독자들에게 그들의 혀를 제어하라고 요구하면서 시작하는데, 혀를 길들이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 것인지 강조하기 위해서 생생한 비유를 사용한다. 필요한 말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말만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 교훈들은 잠언 18:21절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므로 작은 입으로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 올바른 시기에 옳은 말을 할 줄 아는 훈련된 능력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들에 대한 도덕적인 선택들을 접한다. 분명히 당신과 나는 바닷물과 강물이 한 곳에서 기원한 것과는 달리, 동시에 선하고 악할 수 없다. 이러한 도덕적 요구와 삶에 대한 높은 표준은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야고보는 또한 우리가 어떤 것을 올바르게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모든 주변에는 갈등과 심한 다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항상 올바르게 할 때, 평화가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본문해석

이 본문에서 야고보는 지도력에 대한 영적 통찰력을 제공하고 올바른 지혜가 선을 이룰 수 있는지 제공해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조적이고 어떤 것들을 더욱 좋게 만드는 열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능력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될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공헌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지식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될 때, 심각한 갈등과 관계에 있어서 비극적인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

참된 지혜 (3:13)

당신은 어떤 사람이 진실로 영리한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야고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잣대를 제시했다. 야고보는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돕는 것은 지혜가 제공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서로 사랑하라”(요일 4:7)는 계명은 실제로 적용되는 것이다! 야고보 자신의 말로 한다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가 말했던 “지혜의 온유함”은 사악하게 영리한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드러내고, 혹은 당당하게 드러내야 할 새로운 표준이다. 당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장 도울 수 있는 것을 온유하게 하라. 당신이 한 일에 주목될 필요 없이 사람들에게 더욱 유익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라.

여기서 야고보는 진정한 믿음은 선한 행동을 일으킨다는 것을 진술했다. 야고보서에서 그 강조점은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은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단지 선행이 당신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세상에 실현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것들이다.

이 세상의 “지혜” (3:14-16)

하나님께 속한 지혜와는 완전히 다르게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주 진짜 속셈을 감추는 영악함이 있다. 독한 시기와, 질투, 이기심, 야망, 그리고 교만이 가득 찬 사람들은 참된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일에 너무나 힘을 소비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복주시기 원하는지 차분하게 귀를 기울일 수 없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한번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로 볼 수 없다. 이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이기적인 동기를 은밀하게 감추기까지 한다. 진짜 속셈, 감정, 그리고 의도들을 위장하는 것은 진리를 여러 모양으로 거스르며 나타난다. 야고보의 말은 그 가면들을 벗겨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매우 영리하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흉물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지 보게 해준다.

15-16절은 거짓 지혜를 묘사하는데, 이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약 1:5절 참조).

야고보는 이러한 악한 지혜를 구별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주장했다. 만일 질투, 혹은 이기심이 있다면 분명히 혼돈과 잘못된 행동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늘의 지혜 (3:17-18)

이러한 거짓 지혜와는 다르게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온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던 것과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17절에 언급된 위로부터 온 지혜의 모습들을 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핍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이는 갈라디아서 5:22-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열매들은 그 씨앗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평화로운 방법으로 뿌리는 사람들에게 의해 심겨지는 곳에서 자란다. 그러한 열매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주의 깊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씨를 뿌리고, 이 씨가 잘 자라도록 경작하고, 위로부터 온 지혜에 속하지 않은 잡초들을 제거하는 일에 힘을 쓸 때 가능하다.

갈등의 분석 (4:1-3)

전쟁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인가? 우리의 가족들을 괴롭히는 분노, 붕괴, 그리고 파괴적인 행동들은 어떠한가? 소위 친구들 가운데 일어나는 사소한 말다툼과 헐뜯기는 어떠한가? 왜 우리는 선거나 심지어 공인들의 인터뷰를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욕하는 것 없이 들을 수 없는가? 그 대답은 간단하다: 그들 속에 풀리지 못한 갈등에 대해 맹렬한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화산이 폭발하듯

그 긴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 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스려지지 않은 죄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4:2)는 야고보의 놀라운 통찰력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 7:7). 야고보는 분명히 예수님의 산상 수훈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물론 경고가 있다: 그저 구하기만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당신은 당신이 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 만일 당신이 그저 야망이나 이기적인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책임이나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당신을 망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우리는 갈등을 일으키는 행동들과 태도들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평화와 조화를 가져오는 행동들이 있다.

하나님을 따르기 (4:4-5)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벗하면서 살 것인지 두 가지의 선택을 하게 된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 마귀와 같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간음하는 자들로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고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의 대적에게 바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때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남성 상위 시대를 생각할 때, 좀 의아 하다. 이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로 비유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더 좋아하고 빠져있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들이고 이 세상의 원수들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들이고 이 세상의 친구들이다. 이는 서로 완전히 배타적인 관계이다.

“성령 (프뉴마)”의 서술 형용사인 “시기하기까지”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도논'은 '젤로스'('열심', '시기')와 혼용되어 하나님의 배타적이고 크신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질투'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며 개역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에'(* , '혹은')가 헬라어 본문에는 삽입되어 있어 본절과 앞절이 연관된 것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프뉴마'를 '인간의 영'이라고 번역하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은 옳지 않으며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겸손을 실천하기 (4:6-10)

하나님께서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공급하신다. 그것을 다른 말로 정의한다면 은혜이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미워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 4:6).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또한 겸손이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태도를 일어나게 하는 과정들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물리쳐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라.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다.

구약의 시인처럼, 야고보는 야고보서 4:8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순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상기 시킨다 (시 24:4). 영광에 이르는 길은 겸손을 통해 가는 길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 (약 4:10). 이렇게 하는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서는 빌립보서 2:5-11절에서 그분 자신의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 2:8).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빌 2:10-11).

당신은 당신 자신을 내세워서는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당신은 예수님의 겸손의 모델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시는 것을 믿는 것을 통해 앞으로 나갈 수 있다.

판단하는 태도를 피하기 (4:11-12)

서로 험담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다. 말다툼을 하고 서로 모함하는 일은 명백하게 “위로부터 온 지혜”(3:17)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하나님 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그러한 이유로 서로 판단하는 자리에 앉는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글을 쓴 종이를 준비하라: “성경에 따르면 평화롭게 하는 자는 온전함 혹은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를 가져오는 사람이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종이를 보여주라. 수업을 하는 동안에 마 5: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정의를 설명하라, 그리고 질문하라, 평화롭게 하는 자가 이러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반원들이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 대답을 칠판에 기록하라.

학습인도

2. 반원들이 야고보서 3:13-18절을 펴도록 하라. 학습공과와 학습목표를 펴서 읽어라. 오늘 배울 본문은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 무엇인지 점검하도록 도전할 것임을 가르치라. 반원들이 지혜가 무엇인지 정의하게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한 상식적인, 혹은 일반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질문하라.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

3. 반원 중 한 명이 약 3:13-18절을 읽게 하라. 다음과 같이 말하라: 13-16절에서 야고보는 세상적인 지혜와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비교했다. 반원들이 14-15절에 나오는 세상적인 지혜의 특징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라.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 반원들이 이러한 지혜의 특징들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을 주의깊게 살펴서 이러한 지혜가 결국 어떠한 일을 일어나게 하는지 발견하도록 하라.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 이러한 세상적 지혜의 특징들은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특징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들임을 지적하라.

4. 우리는 오직 “위로부터” 살아갈 때, --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때 평화를 발견하고 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라. 다음과 같이 말하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취하기를 갈망하시는 태도들과 이 세상에 속한 독하고 욕망으로 가득찬 사람들에게 의해 제시되는 태도들 사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야고보가 가르친대로 매일 이 세상 위에 있는 방법들인 하나님의 방법들을 따라가야 한다.

5. 반원 중 한 사람이 약 4:1-6절 말씀을 읽게 하라. 말씀이 읽혀지기 전에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경청하도록 반원들에게 말하라. 말씀을 다 읽은 후 질문하라, 야고보는 왜 다툼이 교회에 있다고 말하는가?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 설명하라: 진실로 다툼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데, 이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각각 자기의 이기적인 기쁨과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6. 신도는 그들의 시급한 필요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기 위한 시도를 할 때 커다란 고난과 갈등들을 겪게된다는 것을 설명하라. 약 4:4-6절 말씀을 읽어라.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은혜, 신자들의 위대한 필요, 그리고 참된 겸손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언급하라. 또한 우리가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버리고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태도를 배우게 된다.

적용 격려

7. 학습공과에 나오는 2, 3, 5번 질문들을 사용해서 수업을 마무리 하라. 기도로 수업을 마치라.

[제 5 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약 4:13--5:6</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약 4:13--5:6</p>	<p>학습주제 시간이 영원히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과 소유물을 축적하는 것이 마치 진실로 중요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준다.</p> <p>탐구질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그들이 마치 스스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는가?</p> <p>학습목표 시간과 돈을 어리석게 사용하지 않고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는 길이 무엇인지 파악한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야고보가 무자비한 저주를 하면서 부정적인 어조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 생각은 사실과 아주 다르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은혜의 진술들이 열거된 것을 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5).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야고보서 1:12)

·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약 1:17)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약 1:21)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약 1:25)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찌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2:5)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2:8)

“공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2:13)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공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3:17-18)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4:8)

이 구절들은 야고보서의 많은 부분이 사실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내용이다. 이러한 말씀들이 어느 정도의 책망의 말씀들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주 독자들은 그 책망들만을 보고 야고보서가 성도인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보지 못한다.

실질적인 무신론: 하나님 없이 계획 함 (4:13-17)

성도 상호간의 비방을 금지하는 권고(11, 12절)에 이은 본문은 교회 공동체에 줄 교훈으로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키고 자행하는 세속적 삶을 경계한다. 이러한 본문을 보면 야고보는 먼저 수신자들의 물질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삶을 지적한다(13절). 그리고 인생을 안개에 비유하여 하나님 없이 세속적 가치관(世術的價值觀)에 따라 사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허무한가를 논한다(14절), 이어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의지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15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수완이나 재주 등만을 믿고 자행자지하는 것은 악이요 죄임을 밝힌다(16).

17절).

이러한 본문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유익을 좇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뜻이 자신의 삶과 관련한 최고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고전 4 : 19 : 16 . 7),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의 성패 여부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만족만을 위하여 산다면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비록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능히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잠16 : 1, 9 : 19. 21),

야고보서 4:13-17절에서 지적되는 문제는 마치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은 다음과 같은 헛된 개념이다: (1)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살 것이다; (2) 인생은 항상 지금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3) 사업 환경이 변해도 사업 거래를 잘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모든 신앙인들은 자신들의 안목에 의해서 미래의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고려치 않은 계획이다. 따라서 이들의 육신적 소망은 그들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물론 이는 인간의 모든 유비무환(有備無意)의 태도가 전혀 효력이 없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다만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결할 때 자기 자신의 계획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권고하려는 의도이다.

또 다른 불확실성은 인생의 짧음이다. 여기서 '안개'는 인생이 짧고 허무하며 불안정한 상태인 것을 비유한 것이다. 이처럼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 성경은 '풀'(시 102 : 11), '그림자'(욘 8 :9), '풀의 꽃'(약 1 : 10, 11) 등으로도 표현하였다. 하여튼 이렇듯 인간 모두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임에도 불구하고(눅 12 : 16-21) 마치 자신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선은 아는 것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그것을 행해야 비로소 선이라 할 수 있다. 즉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 나타나야만 참된 선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신앙은 바로 그 믿음이 온전히 삶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눅 12:47).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이득을 취함 (5:1-6)

본문에 열거된 것 가운데 '재물'(πA77rof, 플루토스)은 당시 부의 척도가 되었던 곡식을 가리키며, '옷'과 '금과 은' 이 세 가지는 모두 당시의 세속 물건을 대표한다. 그런데 이런 물건이 모두 상해서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급급해서 자신들의 눈 앞에서 추위에

떨며 굶주린 자들을 돌보지 않았음을 말해준다(약2:16). 그런데 여기서 '금'과 '은'은 녹이 슬지 않는다. 금이나 은으로 대표되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유하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금과 은을 소유하고만 있다면 그것은 금과 은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돌덩이로 만드는 지극히 어리석은 행위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마 6 : 19)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명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청지기적 자세로 선용함으로써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할 것이다(마 6:20).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는 표현은 자기만족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급박하게 임할 것임을 나타낸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는 주님을 찾아야 할 종말의 때에 주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쌓아뒀 아무런 쓸모없는 재물을 쌓았다는 말이다. 이는 세상 재물에 마음을 빼앗긴 부자의 어리석음과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를 제공해 준다.

5장 4절부터 야고보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부자들에게 경고의 말을 시작한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말이다. 특별히 여기서 '들렸느니라'는 말은 완료형으로서 ① 품꾼들의 호소가 이미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며 ② 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암시한다. 결국 탐욕함이 가득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나타낸다.

5장 5절은 계속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부를 오용하는 죄를 말한다. 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부를 이용해서 먼저 사치와 쾌락이 가득한 삶을 살았다. 이러한 죄악은 물질이 부유한 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것들이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러한 부자들의 즐거움을 '땅에서'라는 말로 한정시킨다. 이 말은 부자들의 즐거움에 가득 찬 삶은 이 육신을 입은 세계에만 한정되며 주의 날에 이들에게는 고통과 재앙만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본문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연상케 한다(눅 16:19-31).

여기서 '도살의 날'은 일반적으로 종말에 임할 '심판의 날'을 가리킨다고 본다(Ropes, Oesterley). 그리고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라는 말은 이 땅의 쾌락과 연락에 빠져들어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우둔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질은 부자들이 마치 소나 양들이 자신들의 도살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을 살찌우듯,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억지 아니하고 현재의 삶 가운데서 자신들의 육신적 쾌락과 즐거움에만 몰두해 있음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초대 교회의 경건하고 가난한 신앙인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거의 법정에서 호소하지 못했다. 혹시 법정에서 호소했다 할지라도 변호자를 얻지 못했으며 통치자의 자비도 얻지 못하는 처지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곤 하였다. 야고보는 '옳은 자'의 온유함과 연약성을, 힘과 부와 권력을 동원해 옳은 자를 죽이는 부자들의 죄악성과 대조시켜 부자들의 불의함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눅 12:34)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구두로 대답을 할 것을 기대하지 말고 다음 질문을 하라: 당신은 어떻게 돈을 쓰는가?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돈을 쓰는 형태라는 것을 제시하라. 일반인들이 그들의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에 대해서 다음 목록을 열거하라. 몇 퍼센트인지는 가리고 반원들에게 일반인들이 각 목록에 몇 퍼센트를 사용하는지를 생각할 시간을 주라. 잠시 후 정답을 공개하라.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집세 (34.1%), 교통 (17.6%), 종교적 혹은 다른 기부금들 (3.7%), 오락 (5.4%), 음식 (12.4%), 보험, 연금, 세금 (10.8%), 교육 (1.9%), 장식물 (3.8%), 안전 (1.2%), 건강 (5.7%), 그리고 기타 (3.4%). 질문하라, 이 목록은 당신이 돈을 사용하는 습관과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

2. 수업을 위해서 학습주제와 학습목표를 반원들이 주목하도록 하라. 탐구질문을 칠판에 적어라.

학습인도

3. 반원 중 한 사람이 4:13-14절을 읽게하라. 다음 질문에 반원들이 대답하도록 하라:

* 당신의 삶을 돌아볼 때, 당신의 현재 인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결정은 무엇이었는가?

* 당신은 이 중요한 결정들을 어떻게 내렸는가?

* 이제 당신이 당신의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시기가 오면 당신은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인가?

* 당신은 먼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가?

4. 4:15-17절을 읽어라. 반원들이 다음 질문에 답하도록 인도하라:

*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한 출발점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

* 만일 당신이 성경이 당신 수입의 10프로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몇 프로의 시간을 드리겠는가?

* 당신은 문화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가?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름)

* 당신은 그리스도인 친구들처럼 사는가, 아니면 세상 친구들처럼 사는가?

5. 당신이 5:13절을 읽을 때, 반원들은 부자들이 울고 통곡하라고 했는지, 그리고 왜 그러한 비극과 함께 살게 되는 지 경청하도록 하라 (그들의 부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질문하라, 왜 부를 축적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

6. 부를 축적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 죄들의 증상이라는 것을 요약하라 (학습공과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부를 축적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보라). 반원들이 묵상할 수 있도록 다음 질문들을 제시하라:

* 당신은 부를 축적하는 일에 몰두하는가?

* 당신은 은행잔고를 너무 자주 확인하는가?

* 당신의 부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은 그저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부를 축적하는가?

*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를 사용하기 보다는 축적하는가?

* 지난 12개월 동안, 혹은 5년 동안 당신의 돈을 선한 곳에 사용한 것은 무엇인가?

7. 반원 중 한 사람이 5:4-6절을 읽게 하라. 학습공과와 인도자 지침서의 “학습주해”에 나오는 내용을 사용해서 도움이 될 만한 구절들을 설명하라. 반원들이 다음 질문들을 생각하도록 인도하라:

*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필요를 생각하는가?

*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는 것이 쉬운가, 아니면 어려운가?

* 당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않은 적이 있는가?

적용격려

9. 학습공과에 나오는 학습목표를 참조하라. 질문하라, 본문 말씀을 공부하면서 당신의 시간과 돈을 어리석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 것이 무엇인가?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과]</p>	<p style="text-align: center;">그리스도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야고보 5:7-20</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야고보 5:7-20</p>	<p>학습주제 참된 그리스도 공동체는 단지 또 한 종류의 무리가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질로 구분되는 것이다.</p> <p>탐구질문 참된 그리스도 공동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떠한가?</p> <p>학습목표 야고보가 격려한 교인의 삶의 질들로 나의 교회와 성경공부 그룹을 평가한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약 5:7-20절은 기독교는 곧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을 밝혀준다. 이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인 성공을 이루는 길을 찾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자세한 윤리를 찾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는 서로 삶을 나누고 도움으로써 함께 결승선까지 달려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 각 사람은 서로 도울 수 있는 일을 돕고 지켜주고 인도함으로써 이 순례자의 길 가운데 만나는 인생의 고난들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서로 공헌해야 하는 것이다.

인내를 배우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불평을 하지 않는다든지, 예언자들을 본보기로 삼는다든지, 맹세를 피한다든지,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것은 어떤 영웅적인 그리스도인들만 배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한 행동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나누며 살아야 하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

공동체에 대한 개념은 야고보서에 자주 등장한다. 사실 야고보서가 바울 서신과 상통하는 많은

개념들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공동체 의식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 6:2). 물론 그 법은 "서로 사랑" (요 13:34)하는 것이다.

빌 2:4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말씀을 듣는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길로 빠지는 것을 적극적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견제내라는 말씀은 야고보서 5:20절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6:1절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라고 요청하고 있다.

야고보서는 5:20절에서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고 진술하면서 공동체에 생생한 어필로 결론을 짓는다.

본문 해석

인내 (5:7-8)

야고보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농부의 경우를 예로 들어 앞서 언급한 인내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당시의 기후를 반영한 것으로 '이른비'는 10월에서 11월에 오는 비를 가리키며 '늦은 비'는 4월에서 5월간에 오는 추수 직전의 비를 말한다. 농부가 생명과도 같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리라는 약속을 굳게 믿어 기대하고 인내하는 것처럼(렘 5:24; 욥 2:23; 슥 10:1) 불의한 자들의 압제와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며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빌 4:13).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 본문은 의로운 자들이 인내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유이다. 그리스도의 재림 사상은 신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심되는 사상 중의 하나이다(롬 13:11; 고전 15:52; 살전 4:15; 요일 2:18 등).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즉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때이며(7절) 동시에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의 때이다.

원망하지 말라! (5:9-11)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동기에서 일어나는 불평과 핍박자들을 향한 원한의 탄식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온전히 기뻐하고(1:2)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한다. 한편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히나 메 크리데테'는 단순과거 수동태 가정법으로 문자적으로는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라'(마 7:1)는 의미이다. 이는 원망을 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정죄를 받아 함께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강조 조건적 명령이다.

보라 심판자가 문밖에서 서 계시니라 - 본문은 8절의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는 권면을 보충하는

경고이다. 야고보는 이런 경고를 통해 심판의 임박성을 강조하여 수신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운다(마 24:33;막 13:29;계 3:20, Manton, Burdick).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는 이미 심판하실 모든 준비를 갖추시고 문밖에 서서 기다리신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는 물론 역사적 상황(狀況)을 해석하여 그 의미를 백성들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박해를 받았다. 고난과 박해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예언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인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본이 된다(요 13:15;히 4:11). 그리스도인들은 특수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인내한 예언자들을 바라봄으로 현재의 고난에서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마 5:12;23:34;행 7:52;히 11:33, Moo, Martin) 그 위로 가운데 인내해야만 한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 본문은 마 5:11의 산상 수훈을 반영한 것으로 1:12의 반복이다. 야고보는 인내의 분명한 결과인 축복을 언급함으로 인내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제시한다(단 12:12;마 5:10).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판단을 언급하려는 것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내로 말미암는 축복을 일반화시킨다(Manton, Tasker).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인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야고보는 이런 경우의 실례로 '욥'을 제시한다. 욥의 '인내'에 해당하는 헬라어 '휘포모넨'은 보복하지 않는 자제의 인내를 의미하는 '마크로뮴이아'와는(7-10절) 달리 '환경 가운데서 변치않는 인내'(1:3;골 1:11)를 의미한다. 욥은 순식간에 당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한 인내의 본이다.

맹세하지 말라! (5:12)

본절은 마 5:34-37에서 맹세를 금지한 산상수훈을 반영한 것으로 맹세 자체에 대한 금지보다는 무가치하게 맹세함으로 이웃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범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 야고보는 먼저 맹세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제시한다. 본문의 '맹세'는 사람의 생사를 결정짓는 중대한 순간의 법정적인 맹세가 아니라 삶에 있어서 무심코 남발하는 맹세를 의미한다(마 5:34-37). 한편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는 바라새인들의 모습을 반영한 것으로 신성모독이 아니라는 이유로 쉽게 남발했던 저들의 가벼운 맹세를 암시한다(마 5:33-36). 실제로 유대인들은 맹세를 과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맹세의 대상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경히 여겼다(마 23:16-18). 야고보는 이렇듯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소망하지 못하여 오는 조급함 속에서 '맹세'를 남발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강하게 권고한다.

야고보는 일상 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일컫는 참람된 죄악뿐만 아니라, 단순한 언어 생활에서도 무분별하고 주저없이 서약하는 모순과 위선을 피하라고 권면한다.

능력있는 기도 (5:13-16)

야고보는 본절에서 '고난'과 '기도'를 연결시켜 설명함으로 앞절에서 교훈한 헛된 맹세를 하는 자가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암시함과 동시에 고난 가운데서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함을 권면한다(빌 4:12,13). '기도할 것이요'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슈케스토'는 현재 능동태 시상으로 계속 기도할 것을 나타내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차원의 행동원리를 가져야 함을 시사한다.

5:14절의 '병든 자'의 해석은 신체적으로 질병에 걸린 자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 하면 신체적으로 질병에 걸린 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교회의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교회의 '장로들'은 '감독'이나 '목사'와 동일한 명칭으로(행 15:6,22;20:17;21:18;빌 1:1;딤후 1:5,7;벧전 5:1-4) 교회의 대표를 의미한다(Calvin, Burdick, Mayor, Robertson). 병든 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해서 같이 기도해야 하며, 교회 지도자들은 병든 자를 방문하여 위로하며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한다(살전 5:14).

'기름을 바르며' 문자적으로 '기름으로 문지르다'를 의미한다. 이렇게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사회에서의 공통적인 풍습으로서 의식적인 수단이라기 보다는 의술적인 수단에 가깝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병자를 방문하여 치유의 방편으로 의술을 사용함과 동시에 병자의 마음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본절의 '기도'에는 '믿음의'라는 수식어구가 붙어 있는데 이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신유의 기적이 '믿음'을 요구하는 것임을 나타낸다. 비록 '기름'을 바르는 의학적인 치유 행위를 무시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기도는 믿음으로 하여야 한다(1:6;마 9:22;막 9:29).

설사 병든자의 질병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죄사함의 은혜를 유발하여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막 2:5).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죄(謝罪)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하고 병든 자를 위해 믿음의 기도를 행하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의뢰해야 한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 본절에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바는 '죄를 서로 고하며','서로 기도하는 것'이다. '서로'는 상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죄의 고백'이나 '치유를 위한 기도'가 상호간의 관계성에서 상호간의 죄의 고백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해성사의 근거라기보다는 도리어 개신교의 만인제사장설의 근거가 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 본문의 '의인'은 절대적으로 죄가 없는 의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많이 있어도 참되게 하나님께 회개하여 용서받은 자를 나타낸다(롬 3:10).

능력기도의 한 예 (5:17-18)

본문은 엘리야의 수많은 역사가운데서 비를 멈췄다가 오게 한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야고보는 엘리야의 기도가 자연의 현상까지 변동시킨 사실을 드러내어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사실을 예증한다(왕상 17,18장).

구약성경에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묘사되어 있다(왕상 17:1;18:42). 이러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을 받아 비를 그치게도 하고 내리게도 하였다. 한편 본문에서는 한발의 기간에 대해 '삼 년 육 개월'이라 하나 왕상 18:1에는 '제 삼 년'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3년 6개월이 가뭄의 전체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왕상 17장에 기록된 사건들의 전체 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 해결된다(눅 4:25).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야고보가 왕상의 내용을 직접, 간접으로 인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기회를 주기 (5:19-20)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유대교나, 이방의 신비 종교 혹은 이교철학으로 되돌아가는 자가 많았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처럼 구원의 길에서 떠나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서로 권면하여 다시 돌아와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면한다(요일 2:26).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자였으나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영적 죽음에서 구원을 얻어 영적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계 20:6).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다음 이야기를 반원들에게 들려주라. 2004년 12월 끔찍한 쓰나미가 지나간 후 한 아기하마가 발견되었다. 그 아기하마는 엄마와 떨어진 채로 발견되었다. 오웬이라는 한 남자가 그 아기하마를 잡아서 한 야생 동물원에 가져다 주었다. 그 공원은 어떤 하마도 없는 곳이었다, 그래서 이제 "오웬"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그 아기하마는 "미즈"라고 불리는 새 엄마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미즈는 거북이었다. 그들은 다정하게 지냈다. 그들은 함께 먹고 함께 놀았다.

우리 교회들은 많은 경우 여러 다양한 배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제시하라. 야고보서는 오늘 수업에서 네 가지 방식으로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인내를 기르는 것, 고결하게 살아가는 것, 기도생활을 풍성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서로 보호해 주는 것.

2. 학습공과에 나오는 학습주제와 학습목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라. 칠판에 탐구질문을 써라. 반원들에게 오늘 수업을 하면서 이 질문들을 마음에 두고 공부를 할 것을 주문하라.

학습인도

3. 반원 중 한 사람이 약 5:7-11절을 읽게하라. 학습공과와 인도자 지침서의 "성경주해" 내용을 이용해서 설명하라. 다음 질문을 사용해서 토론하라:

- * 당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 * 당신이 잘못했다고 느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참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인내에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가?
- * 당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지 못할 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가?
- * 당신의 가족에게, 당신의 직장동료에게, 당신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당신의 교회에게 어떻게 더 많은 인내를 보여 줄 수 있는가?

4. 학습공과에서 헬라어 "인내" (makrothymeo)라는 단어와 "견인" (hyomone) 이라는 단어가 서로 다르면서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라.

5. 약 5:12절을 읽어라. 학습공과와 인도자 지침서의 "성경주해" 내용을 참조해서 설명 및 요약하라. 다음 질문을 사용해서 심화학습 하라:

- * 당신의 "예"는 항상 "예"를 의미하는가?
- * 당신은 사람들에게 정직한가?

*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심지어 당신 자신으로부터 숨기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6. 반원 중 한 사람이 약 5:13-18절을 읽게 하라. 학습공과와 인도자 지침서의 "성경주해" 내용을 참조해서 그 구절들을 설명하라. 야고보서는 기도가 우리 개인의 삶과 믿음 공동체 안에서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음을 지적하라. 질문하라, 당신의 기도생활을 평가하면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반원들이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라:

* 당신의 경험으로 볼 때 기도를 하면 정말 달라진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왜 기도가 필요한가?

* 당신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대했던 대로 응답하셨는가?

* 당신은 보통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 오늘날 사람들이 옛날보다 더 많이 기도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덜 기도한다고 생각하는가?

7. 반원들이 서로 기도의 사슬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라.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옆에 있는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연결고리를 만들면 매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슬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8. 기도의 능력은 엘리야의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남을 지적하라. 학습공과에 나오는 '참고' 내용에서 "엘리야의 기도" 를 참조하고 요약하라. 질문하라, 당신은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라고 정말로 믿는가?

적용격려

9. 야고보서가 제시하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네 가지 특성을 복습하라. 그 네가지는 다음과 같다:

* 인내

* 고결함

* 기도

*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함

질문하라, 이 영역에 있어서 당신 자신, 우리의 성경공부 그룹,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10.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진실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함으로 수업을 마치라.

[제 7 과]	생명의 말씀에 중심을 둔 삶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요일 1:1-2:2</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요일 1:1-2:2</p>	<p>학습주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길을 열어 주셨다.</p> <p>탐구질문 그리스도께 중심을 둔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p> <p>학습목표 내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지 점검하고 진실로 그렇게 살아간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요한 1, 2, 그리스 3서는 초대교회 믿음의 조상들의 세계와 1세기 말즈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함에 있어서 부딪혔던 갈등들을 엿 볼 수 있는 놀라운 창문 역할을 해준다. 또한 윤리, 갈등, 죄, 그리고 그리스도론에 있어서 우리가 사는 현대의 제자도를 도전하는 거울이다.

요한 1서를 읽으면 특별한 학자가 아니더라도 이 것이 서신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될 것이다. 특히 요한 1서보다 짧은 자매서인 요한 2서, 3서를 읽어보면 더욱 그렇다. 첫째, 요한서신은 전형적인 서신의 특징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발신인과 수신인이 누구인지 밝히는 일반적인 인사말 없이 시작하고 축복의 말이나 안부 인사 없이 끝을 맺는다.

아마도 요한 1서는 그 최초 독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믿음의 뿌리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격려하고자 하는 설교이거나 혹은 지침서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게 보인다.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설교자가 (아마도 요한 2서, 3서에서 언급된 장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여겨지는 교회의

회중들을 향한 열정적인 탄원을 들을 수 있다.

그 열정은 그 공동체 안에서 간파되는 위기로부터 기원한 것이다. 요한은 그 공동체가 회중의 결속을 심각하게 깨뜨릴 수 있는 위협 아래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믿음 공동체의 연합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지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7:22). 그 공동체를 위협하는 무서운 위기는 외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공동체 내부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본문 해석

사귀으로 체험되는 생명의 말씀과 기쁨 (1:1-4)

====1:1 태초부터 있는. - 이것은 1:1과 병행된 표현으로 생명의 말씀이 영원 전에 선재하였음을 암시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로 영원전부터 선재하셨다.

본문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생명의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첫째로, 영원하시고 인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현현을 의미한다. 즉 성육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요 1:1). 둘째로, 복음을 의미한다. '생명의'에 해당하는 헬라어 '조에스'는 '말씀의 내용'(행 5:20 ; 빌 2:16)을 의미하기도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요 8:12; 6:35; 계 21:6; 22:1)을 가리킨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 '들은 바요'(아케코아멘)와 '본 바요'(헤오라카멘)는 완료시제이다.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 예수 안에서 마침내 실현되었으며 그것을 사도들이 예수께서 설교하셨을 때 듣고, 예수께서 사역하셨을 때 눈으로 보고 확인하였음을 의미한다(히 1:1, 2). 요한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는 표현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역사 속에 현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셨으며 그의 사역과 설교를 통해 자신 안에 실현될 복음을 전파하셨음을 강조한다.

====1:2

'나타내신 바'는 예수위 지상 사역을 의미한다. 즉 그의 성육신과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킨다. 이는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이 역사적으로 예수 안에서 계시되었음을 시사한다.

본문은 세동사, 즉 '보았고', '증거하고', '전하노니'를 통하여 경험의 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 헬라어 본문에는 바로 앞에 '영원한 생명'(텐 조엔 텐 아이오니온)이 자리잡고 있어서 본절 처음에 나타난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와 같은 의미의 반복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보다 발전된 표현으로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부각시키고 동시에 생명의 결정적인 근원으로 '아버지와 함께'를 제시한다.

본절에서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사귄다'이다. 요한이 본절에서 '사귄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행위로써 표현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사상과 연결된다(2:3). '사귄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문자적으로 '공동 소유', '협동'을 뜻하나 본절에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공동자금을 모금한 '서로 나눔'의 의미(롬 15:27; 고전 9:23; 고후 13:13) 둘 다를 함축한다.

우리의 사귄다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다. - 본문은 1절 전반부부터 암시되어 온 예수의 이름을 명백하게 소개하고 있다. 요한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사귄다'의 본질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임을 분명히 제시함으로 그 사귄다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즉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영원한 생명이시며 동시에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는 수신자들 사이에 퍼져 있었던 예수의 인성이나 신성을 경시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한 경고를 내포한다(고전 1:9).

=====1:4

본문은 요 15:11을 반영한다. '기쁨'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귄다',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는 사귄다의 결과이며 동시에 성령의 열매이다(갈 5:22). 이러한 기쁨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사귄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재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불완전하므로 기쁨 또한 불완전하다. 그러나 불완전한 사귄다 가운데 누리는 완전치 못한 기쁨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인 사귄다와 기쁨의 표징이며 보증이다. 그러기에 이 기쁨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헌신적인 사귄다 가운데 기쁨을 누리야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함 (1:5-10)

=====1:5

요한이 염두에 둔 영지주의자들의 그릇된 주장이 6, 8절에 이어 세 번째로 소개된다. 본절에서 요한은 보다 보편적인 진리를 통해 도전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공격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경을 통해 인간 전체가 범죄하였으며 죄에 신음하고 있음을 선언하셨다(시 14:3; 사 53:6; 요 2:24, 25; 롬 3:22-24).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행위이다.

한편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는 말은 죄를 부인하는 것은 구원과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과 빛 가운데 살 수 없게 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죄의 은혜를 바랄 수 없게 함을 시사한다.

'소식'에 해당하는 헬라어 '앙겔리아'는 신약 성경에서 본절에만 사용된 것으로 2, 3절에서 언급된 사도들이 선포한 생명의 말씀을 가리킨다. 요한은 이 소식에 대해 '저에게서 듣고'라고 표현함으로 생명의 말씀이 역사적인 예수의 생과 가르침 가운데 들려진 복음임을 강조한다. 이 소식의 내용이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빛'은 진리와 의로움을 상징하는 것으로(시 27:1; 36:9; 119:130; 사 5:20; 미 7:8b; 말 4:2).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4:24), 사랑이시라(요일 4:8)는 표현과 함께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낸다. 요한은 자주 '빛과 어둠'을 대조시켜서 하나님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본성에 합당한 생활, 즉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덕적인 요청을 하고 있다(6, 8, 10절; 2:4, 6, 9; 눅 16:8; 요 8:12; 엡 5:8-14).

요한은 본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5절)는 말씀을 전제로 하여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공격하고 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적 사상에 빠져 물질세계를 악한 것으로 배척함으로써 죄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런 주장은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빛 가운데 행해야 함을 강조하는 진리인 '하나님은 빛이시라'를 그릇되게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부여하며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시는 하나님과의 사귄다는 것은 죄된 삶을 상징하는 어둠과 분리될 수밖에 없다.

한편 '행하면'의 헬라어 '페리파토멘'은 문자적으로 '동행한다'라는 의미로 구약 성경에서 유래된 표현이다(2:6, 11; 창 17:1; 왕상 2:4; 요 8:12; 요이 1:4). 이것은 하나님과 사귄다는 의미로 말할 때는 진리 안에서 행함이 뒤따라야 하며 빛 가운데의 삶을 동반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귄다는 전혀 관계없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빛이시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귄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귄다는 단순히 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진보하여 그리스도인 사이의 사귄다는 성취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상호간의 사귄다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사귄다는 전제로 함을 암시한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타락된 성품까지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심을 의미한다. 이러한 두 가지 결과는 하나님과의 사귄다는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 혐오감을 느껴 거부할 때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며 하나님과 사귄다는 있게 된다. '자백'은 구체적으로 죄를 깊이 생각하고 뉘우치며 진실하게 고백함으로 버리는 것을 가리킨다(시 32:1-5; 잠 28:13).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에 근거하여 고백한 죄인들을 사죄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대언자 (2:1-2)

====2:1

'대언자'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문자적으로 '돕기 위해 곁에 부름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로자 또는 옹호자'를 가리킨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으나(요 14:16,26; 15:26; 16:7) 본절에 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 중보하심을 시사한다.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께서는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중보하시는 분이시며 '파라클레토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하나님 존전에서 그리스도인의 죄를 중보하신다.

====2:2

본문은 앞절에서 언급된 '의로우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을 행하실 수 있는 자격으로서 '화목 제물'임을 제시한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희생 제사를 제정하심으로 속죄의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그 희생 제사를 제정하심으로 속죄의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그 희생 제사를 받으셨다(레 16:34). 또한 신약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롬 3:21-26). 즉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서 속죄의 수단을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희생을 통하여 원수 되었던 인간과 자신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반원들이 자동차를 시험 운전할 때를 회고해 보도록 하라. 질문하라: 당신은 왜 그것을 시험 운전했었는가? 반원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라: 그것이 기대치에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차가 딜러에서 주장하는 것과 정말 같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2. 다음과 같이 진술하라: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정말 그런지 결정할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한다. 이 과에서 우리는 "참된 믿음"에 대한 우리의 공부를 계속 하고 요한 1서와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시험들"을 공부를 시작한다.
3. Faith (믿음), Love (사랑), 그리고 Obedience (순종), 각 단어들의 첫번째 알파벳을 수직 일렬로 맞추어서 칠판에 기록하라. 그 단어의 첫번째 알파벳을 수직으로 읽으면 FLO (flow (흘러 넘치다)라고 발음됨) 가 된다. 요한 1서에서 우리의 참된 믿음에 대한 세 가지 시험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단어임을 지적하라.

학습인도

4. 5절, 6절, 8절을 읽기 전에 반원들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에 대한 대답을 생각하면서 읽게 하라.
5. 요일 1:1--2:2절을 반원들이 소리 내지 않고 읽게 하라.
6. 반원 중 한 사람이 요일 1:1-4절을 소리내서 읽게 하라. 반원들이 아래에 있는 각 카테고리에 대한 관찰들에 대해 대답할 수 있도록 하라.
 - a. 누가? (요한, 저자;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 성부, 독자들; 다른 그리스도인들)
 - b. 무엇을? (창조; 예수님과 의 인격적인 체험에 대한 요한의 증언; 사귀; 기쁨)
 - c. 언제? (시작; 과거; 요한의 과거와 그리스도와 의 지속적인 체험; 요한은 지금 선포했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 영원한; 현재의 사귀의 가능성들과 기쁨)
 - d. 어떻게? (요한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체험했는지; 요한의 기쁨이 어떻게 충만하게 되었는지)

7. 발견한 것을 요약하라. 학습공과와 인도자 지침서의 "성경주해" 내용을 사용해서 다음 단어들을 설명하라: 말씀, 생명, 사귄, 기쁨.

8. 반원 중 한 사람이 요일 1:5-7절을 자원해서 읽게하라. 반원들이 다음 각 카테고리들을 주의를 두고 관찰하여 대답할 수 있도록 하라:

- a. 누가? (요한, 저자;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교회 [서로]; 예수 그리스도, 의인들)
- b. 무엇을? (복음의 말씀; 빛; 어두움; 거짓말들; 우리 삶의 행동들 [행함]; 사귄; 그리스도의 피; 죄; 진리)
- c. 언제? (메시지를 들었을 때, 현재 그리고 계속해 메시지를 선포하거나 기록할 때; 현재, 그리고 지속적인 체험)
- d. 어떻게? (메시지를 들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함으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사귄을 가져다 준다).

9. 발견한 것을 요약하라. 학습공과와 인도자 지침서의 "성경주해" 내용을 사용해서 다음 단어들을 설명하라: 행함, 빛과 어두움; 거짓말/ 진리; 스스로를 속임.

10. 반원 중 한 사람이 자원해서 요일 1:8--2:2절을 읽게하라. 다른 반원들은 아래에 있는 카테고리에 대해 관찰을 하면서 대답할 수 있도록 하라.

- a. 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
- b. 무엇을? (죄; 하나님의 의; 신실함; 용서; 진리/ 속임; 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들을 적용)
- c. 언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죄를 부인할 때, 혹은 우리가 죄를 인정할 때)
- d. 어떻게? (그리스도의 희생의 화목제사, 대언하심; 고백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의함]; 자기기만으로 죄를 깨닫지 못함; 죄를 깨닫는 것은 깨끗케 하심과 의롭게 하심으로 이끔)

11. 발견한 것을 요약하라. 학습공과와 인도자 지침서의 "성경주해" 내용을 사용해서 다음 단어들을 설명하라: 고백; 깨끗케 하심; 화목케 하심; 대언자.

적용 격려

12. 반원들이 다음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의 진정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라. 미리 프린트 해 놓은 것을 나누어 줄 수도 있다.

- a.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은 구세주와 주로 받아들이는 삶이었는가?

- b. 나의 삶은 다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가?:
 - (1) 나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 (2) 나는 온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가?
 - (3) 나는 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가?

<p>[제 8 과]</p>	<p>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안다는 것</p>
<p>핵심본문 요일 2:3-27</p> <p>배경 요일 2:3-27</p>	<p>학습주제 어떤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진실로 그리스도임을 믿느냐에 달려 있다.</p> <p>탐구질문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p> <p>학습목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생각한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아마도 요한 2서와 3서의 장로일 것으로 추정되는 저자는 요일 2:3-27에서 주의 깊게 그의 관심사들을 배열했다. 첫째로, 그는 분리주의자들에 의해 지지를 받는 거짓 믿음의 슬로건들의 뿌리를 쳐 내면서 시작했다. 이들은 교회에서 문제를 이미 일으키고 있었던 자들이다 (요일 2:4,6절의 인용을 참조하라). 그들이 내 놓은 모든 주장은 사람들을 오도했고, 어리석은 지식이었다. 둘째로, 장로는 그의 청중들, 즉 그의 "자녀들" (2:1, 18)에게 그들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두려워 할 것이 전혀 없으며,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재확인 해주었다. 그들의 행동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주었다 (2:12-14).

하지만 요한은 바로 이어서 그들의 가드를 내리지 말 것을 상기시켰는데, 이는 세상으로부터 그들이 배격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15-17). 마지막으로 저자는 새로운 지식을 그의 청중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와 세대의 상황이 곤란을 겪게 될 것에 관한 것이었다 (2:18-19). 그리고 이러한 계시로 인해 염려하거나 불안해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들 자신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으로 격려했다 (2:20-27).

궁극적으로 이 구절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고 있는 신학적인 관점들에 대한 요한의 영려들에 집중하고 있다. 그의 확증 (그리고 경고)적인 말들은 이 공동체 내부의 깨진 틈을 수리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었다. 그 공동체는 그들의 행동들을 점검하고 판단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을 통해 확증할 수 있었다. 동시에 이러한 평가들, 혹은 시험들은 또한 적그리스도적인 분리주의자들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순종의 시험에 의한 확신 (2:3-6)

====2:3

요한은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적이고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이며 역동적인 것임을 시사한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일련의 사고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영적인 관계이다(Smalley). 그래서 요한은 '아는 줄로'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완료 시상인 '에그노카멘'으로 표현하여 과거에 알았던 경험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함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명과 연결시켜 하나님의 도덕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2:4

'저를 아노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영생을 소유하였음을 나타내는 주장이다(요 17:3).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형성한 자라면 그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요구인 계명에 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나야만 한다. '저를 아노라'고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이 없는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고 죄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는 거짓말장이일 뿐만 아니라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1:6). 여기서 '진리'는 요한이 '구원의 복음'이나 '참된 것'을 나타낼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2:5

요한은 본절에서 앞절의 '계명' 대신에 '말씀'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신 도덕적인 계명 뿐만 아니라 자신을 계시하신 모든 복음의 내용에 대한 순종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지키는'의 헬라어 '테레'는 현재 시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속적인 것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온전케 되었나니'의 헬라어 '테텔레이오타이'는 완전과 성숙의 개념을 내포한다(Barker). 더욱이 '테텔레이오타이'는 완료 시상이다. 이는 완전과 성숙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속되어 성숙의 과정 속에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성숙되어가며 완전하여져 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함으로써 그 사랑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성숙되고 온전해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

내주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2:6

'행하시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페리파텐센'은 부정과거 시상으로 예수께서 지상에서 사신 삶을 가리킨다. 요한은 본절에서 하나님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함으로 하나님 안에 내주함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생활하신 것과 같이 생활해야 함을 강조한다. 즉 하나님 안에 내주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윤리적인 계명은 물론 복음에 대해 순종함이 그 삶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드러나야 한다.

사랑의 시험에 의한 확신 (2:7-11)

=====2:7-8.

요한은 이제부터 언급할 '사랑의 계명'이 수신자들에게 생소한 것이 아니라 잘 알려진 계명임을 밝히고 있다. 즉 '새 계명...이 아니라'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은 동일한 내용을 가리킨다. 본문에서 '계명'으로 번역된 헬라어 '헤 안토레'는 단수이다. '엔통레'가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옛 계명이 의미하는 '사랑의 계명'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성한 계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십계명을 하나의 사랑의 계명으로 요약하고 계신다(마 22:37-39).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로 참된 것이라. - 본문의 '새 계명'은 앞절에서 사랑의 계명을 옛 계명으로 지칭한 것과 모순되는 듯 보인다. 여기서의 '계명'은 예전부터 수신자들이 전해 들었다는 의미에서의 옛 계명을 가리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새 계명'이다. 사랑의 계명은 한편으로 옛계명이지만 새 계명이 된다. 이러한 새 계명은 그리스도와 모든 믿는 자에게 성취되어 분명한 실체로 나타났다.

=====2:9-11

본절의 '빛 가운데 있는 자'(요 12:46)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어 세 가지 주장이 하나의 주장, 즉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빛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빛 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관계는 윤리적인 계명에 대해서만 아니라 복음 전체에 대한 순종을 요구한다. 그러기에 빛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치 않는다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며 진절할 의미에서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는 빛 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빛 가운데 거한다고 주장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눈이 멀어서 스스로의 실체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는 자다. 즉 그들은 스스로가 빛과 어둠 사이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구분하는 분별력을 상실하여 어둠에 속해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그는 빛 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착각함으로써 스스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상실하였으며, 실상 하나님을 멀리 떠나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있다.

삼화: 확신의 이유 (2:12-14)

=====2:12-13

본문은 죄사함이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1, 2절) 그의 이름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시사한다.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이', 즉 선재하신 그리스도를 언급함으로써 당시에 팽배해 있던 이단 교리에 대해 공격하고 있다. 당시 이단자들은 하나님의 선재하신 말씀, 즉 로고스가 나사렛 예수 안에 성육신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였다. 요한은 이러한 거짓 교리가 흔하던 수신자 공동체에서 '태초부터 계신 이'로서의 그리스도를 언급함으로써 이단 교리의 거짓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악한 자'의 헬라어 '톤 포네론'은 사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악을 인격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 사단은 빛과는 상관이 없으며 어둠의 세계를 조종하고 통제한다(14절;3:12;5:18, 19;요 17:15;엡 6:16;살후 3:3).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빛 가운데 거한다고 주장하면서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들은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며 사실상은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사단의 조종 아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악을 향해 저항하고 투쟁하는 삶을 산다.

=====2:14

청년들아...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 본문은 13절과 병행된다. '강하고'는 육체의 강함보다는 영적인 강건함을 의미한다(엡 6:10;계 18:8). 청년들아 영적으로 강건해서 악한 자, 곧 마귀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실체로서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영적으로 강건케 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악한 자에 대한 승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사랑하느냐 않느냐 (2:15-17)

=====2:15

본절에서 17절까지는 '세상'이란 단어가 6번 등장한다. 여기서 나타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의해 통제를 받는 체제를 가리킨다(4:3-5;5:19;요 16:11, Barker, Stott). 이러한 세상은 본질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한다(요 15:18, 19;17:25). 요한은 수신자 공동체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것을 세상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16-17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 요한은 상반절에서 언급된 세 가지 예,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세상, 곧 사단이 지배하는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기에 세상과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또다른 이유이다. 세상은 한시적이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세상과 세상을 사랑한 모든 사람은 공동의 운명으로 파멸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죄를 미워하며 오직 사랑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믿음의 시험에 의한 확신 (2:18-27)

=====2:18-19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 '적그리스도'로 번역된 헬라어 '안티크리스트스'는 관사가 없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 본문의 '적그리스도'는 어떤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기 보다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대적하거나 반대하는 자를 의미한다. 요한이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당시에 많이 나와 있음을 언급한 것은 당시 그리스도에 대해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던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때문인 듯하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완전한 인간이심을 부정함으로 그리스도를 부정하였다(요이 1:7).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 본문은 앞절에 언급된 '적그리스도'가 다른 종교를 가진 자가 아니라 수신자 공동체 일원으로 있다가 거짓 교리에 빠진 자임을 나타낸다. 그들이 스스로 나간 것을 보고 요한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이 형식적으로는 수신자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이었지만 사실상은 전혀 공동체에 일원이라 할 수 없었음을 암시한다. 그들이 공동체에서 이탈한 것은 스스로 그 공동체의 일원이 아님을 증명하는 행위였다.

=====2:20-23

수신자 공동체 일원들은 영지주의자들처럼 단순히 성유식을 행한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깨달게 하셔서 자신 안에 거하게 하셨다.

요한은 수신자 공동체가 기름 부음을 받아 온전히 진리를 식별할 수 있음을 밝히고, '거짓이 진리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진리를 선언하고 있다.

진리가 '거짓'에서 나올 수 없음을 선언한 요한은 본절에서 '거짓'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거짓말하는 자'란 예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다(4:2, 3; 요이 1:7). 이들은 예수께서 참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것이며,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곧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요 12:44, 45).

=====2:24-25

본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임을 시인할 때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고 상호간의 내주가 성취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한편 '거하리라'의 헬라어 '메네이테'는 상반절에서 현재 시상을 사용한 것과는 달리 미래 시상이다. 이것은 지속적인 상호간의 내주를 통한 현재의 영적 경험의 미래의 온전한 구원을 향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성령의 역사 안에서 복음을 굳게 견지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한 순종을 수반해야 한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아들을 알지 못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인 영생을 소유할 수 없게 된다.

=====2:26-27

'기름 부음'은 성령을 가리킨다.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진리이시다(5:7). 여기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는 그 가르침의 내용은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각 개인에게 가르쳐지기 때문이다. 그런 반면에 당시 에 이단적 교리를 전파하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요한은 이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음을 강력하게 권고하여 영지주의자들의 이단적 가르침을 공격하고 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셔서(요14:17; 15:26)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요16:13)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요14:26).

기름 부음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가리킨다. 그러기에 그는 물론 그의 가르침 전체가 참되며 거짓이 없다. 성령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야 할 일을 가르치신다(요14:26).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 a. 각 반원에게 다음 글을 적어서 접고 스페이플로 봉한 후 나누어 주라: "FLO가 없이 하나님을 하는 자는 없다."
- b. 자원자 중 한 사람이 신명기 6:4-5; 마태복음 22:37-40; 마가복음 12:29-31; 누가복음 10:27; 요한복음 13:34-35; 15:12, 17 을 큰 소리로 읽게 하라.
- c. 반원들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무엇을 관찰할 수 있었는지 대답하도록 하라.

2. 역할극을 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선정해라. 한 사람은 집 주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배관공이다. 집 주인이 고용할 때 그 배관공은 자기가 배관에 대해서 잘 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그는 공사를 잘못해서 집을 물에 잠기게 했다. 집 주인은 그 배관공이 자기가 배관에 대해서 안다고 말해 놓고, 실재로 그런 기술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

3. 칠판에 "FLO" (flow (흐르다) 라고 발음됨) 라고 수직으로 써라. 반원들이 그 이합체가 나타내는 바를 기억하도록 하라 (Faith [믿음]; Love [사랑]; Obedience [righteousness, 순종, 의]).

4. 반원들이 처음에 나누어 주었던 유인물을 열어서 속으로 읽게 하라. 반원들이 종이에 기록한 글에 대해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 각각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표현하도록 하라. 다음과 같이 말하라: 요한 1서 전체에 걸쳐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FLO 를 강조하고 있다.

학습인도

5. 말하라: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면서 실재로 그들의 삶은 "FLO"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반대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6. 칠판에 두 개의 영역을 만들어서 한 쪽에는 "진실로 알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그들이 안다고 말한다"라고 써라. 요일 2:3-6절을 설명하면서; 반원들이 두 개의 우리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칠판에 적힌 두 개의 영역을 활용하도록 하라.

7. 질문하라:

a. 요한 1서에서 "행하다"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믿는가? (일상 생활을 하는 것)

b. 당신은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행함"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는가?

다음과 같이 말하라; 그리스도를 진실로 아는 사람은 일상 생활 (행함) 의 두드러진 특징으로서 그리스도께 적극적으로 순종한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습관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성숙한, 이루어진, 충만한 증거임을 설명하라. 요한복음 14:21절을 참조하라.

8. 학습공과와 인도자 지침서의 "성경주해" 내용을 참조해서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와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을 비교하라.

9. 학습공과와 인도자 지침서의 "성경주해" 내용을 사용해서 2:12-14을 설명하라. 요한은 그의 독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다"는 믿음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서 확증을 하고 있다. 질문하라: 이 질문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도 FLO 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10. 2:15-16절 말씀으로 반원들이 다음을 할 수 있도록 도우라: (a) "세상"을 정의하라; (b) 2:12-14절에 있는 요소들의 근원에 비교하는 것으로서 세상에 속한 것들의 근원을 설명하라.

11. 설명하라: 2:18-27절에서 요한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레이블을 붙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알지 못하는 "적그리스도"이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학습공과의 참고에 나오는 "지식" 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라. 반원들에게 오늘날 만연한 적그리스도적 교훈들이 무엇인지 지적해보도록 하라.

적용격려

12. 반원들이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FLO 의 삶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 그리고 그 증거들이 삶 속에 나타나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 기도로 수업을 마치라.

<p style="text-align: center;">[제 9 과]</p>	<p style="text-align: center;">확신과 함께 미래를 맞이하는 것</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요일 2:28-3:10</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요일 2:28-3:10</p>	<p>학습주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써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다.</p> <p>탐구질문 우리는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함께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까?</p> <p>학습목표 확신을 가지고 나의 미래를 맞이하기 위한 길들을 파악하는 것.</p>

성경주해

배경이해

요한1서 2:28-3:10절은 성경의 장과 구절의 나눔들이 항상 저자가 의도한 사상의 흐름대로 나누어진 것은 아니라는 좋은 예이다. 장과 구절로 나누어진 최초의 영어 성경은 1560년에 인쇄 되었다. 28절은 요한이 그의 회중에게 새로운 설교를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들아, 이제 (and now, children)" (요일 2:28a)은 그가 새로운 주제를 나눌 것이기 때문에 그의 청중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 다음 구절에서 요한은 자주 그의 청중들에게 세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의 길들에 대해서 설교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3:1)이거나 아니면 마귀의 자녀 (3:8)이다. 이 두개의 확연히 다른 비교는 요한이 그의 청중들 앞에서 전하는 메시지의 중심에 이원론을 제시한다.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는 또한 이 구절들에서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초림과도 같다. 재림에 대한 요한의 강조는 그의 공동체로 하여금 그들이 겪고 있는 위기에 대해서 상기시켰다. 하지만 그 위기는 한편으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들이 예수의 참되고 신실한 제자들인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다. 어쩌면 요한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초림이었을지도 모른다. 예수님의 초림 사건은 인간의 속죄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예수님의 이러한 역사는 우리가 구별되어 살도록,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DNA 속에 있는 의 (2:28—2:29)

=====2:28

'그 안에 거하라'는 본장에서 자주 언급된 권면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내주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되며 '사랑하라'는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계명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동반한 그리스도인의 내주는 그리스도인들로 약속된 영생을 소유하게 한다.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것은 종말론적이다. 즉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이유를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심판과 연결시키고 있다.

=====2:29

요한은 본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거듭나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할 표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에게서 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만 한다. 그래서 요한은 본장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어두움에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3-6절). 만약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지상 생활 가운데서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순종의 생활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아버지에게서 난 자라고 말할 수 없다.

가족사진 (3:1—3)

=====3:1

'자녀'에 해당하는 헬라어 '테크나'는 실제적인 부자 관계에서의 자녀됨을 강하게 함축하는 단어이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주로 '휘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법적인 부자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써 값없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우신 사랑인가를 선포하고 있다. 요한은 세상이 예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사실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에 속한 자요 어두움에 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영접하거나 인정하기를 거부한 자이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알 수가 없다.

=====3:2

본문은 '지금...아직'이라는 종말론적 긴장 관계(eschatological tension)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나타낸다.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 된 그리스도인을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간에, 혹은 그리스도인의 현재 모습이 육체의 소욕(所慾)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을지라도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신자의 미래에 대해서는 구원의 영광이 약속되었다. 그러나 비록 현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과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며 미래에 주어질 구원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장차 되어질 그리스도인의 미래 상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시 되지 않았기에 분명히 알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야 신자는 장래에 자기 자신에게 일어날 구체적인 상태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 사용된 '그'는 후자의 견해와 같이 전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우리가 주와 같을 줄 아는 것이 주의 계신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은 그날에 '우리가 새사람을 입고'(엡4:24) '주와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되어서'(빌3:21) 주와 같이 됨을 의미한다.

=====3:3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 '소망'의 헬라어 '엘피다'는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에는 빈번하게 나타나지만(롬5:4; 8:24; 고후1:7; 벰전 1:3) 요한 복음이나 요한 서신 중에서는 본문에서 단 한 번 나타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이루리라는 확신에 찬 기대'라는 소망의 개념은 2절에서 명백히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이 소망'은 2절에 나타난 장래의 일들에 대한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리킨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 요한은 예수의 특징을 '깨끗하심'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정결하심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따라야 할 본보기임을 시사한다(2:1,29;3:7). 한편 '깨끗하게 하느니라'로 번역된 헬라어 '하그니제이'는 본문에서는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품으로서 도덕적인 깨끗함을 의미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진 자는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마5:48).

죄, 죄들, 죄를 짓는 것 (3:4-6)

=====3:4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 본문은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진술이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하여 자신들은 죄가 없으며 불법을 행하

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요한은 죄를 짓는 사람은 모두가 예외없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 영지주의의 거짓 가르침을 배격하고 있다.

여기서 '불법'(아노미안)은 문자적으로 '율법을 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요한이 '율법'이란 용어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본문의 '불법'은 율법을 범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려는 인간의 본성적인 불법을 의미한다. 요한은 자기 자신들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사실상 하나님을 배반하는 무서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3:5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 '죄'에 해당하는 헬라어 '하마르티아스'(*)는 복수형이다. 이는 죄악된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으며(요1:29), 모든 죄를 친히 자기 몸에 짊어지심으로써 우리 죄를 없이 하셨다(사53:11,12; 히9:28; 뱀전 2:24).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 '죄가 없다'는 말씀은 3절의 '깨끗하심'과 2:29; 3:7의 '의로우심'과 동일한 의미이다. 예수의 무죄성은 초대 교회의 케리그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고후5:21; 히4:15; 뱀전1:19).

====3:6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 앞 절에서 진술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죄와 상관 없는 깨끗한 분이시기에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와 상관없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만약 죄를 범한다면 그는 회개함을 용서함을 받고 불법의 생활을 버려야 한다. 그러나 그가 지속적이며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죄를 좋아하며 죄 안에 거하길 즐겨한다면 그는 완전히 깨끗하신 그리스도를 알거나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알지도, 보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요5:37,38; 8:19; 14:7,9; 요삼1:11).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며 마귀의 자녀인가? (3:7-10)

====3:7-8

영지주의자들의 신학과 윤리의 가르침은 요한 당시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시켰다. 그래서 요한은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 이외의 것을 가지고 미혹하는 자들을 멀리하며, 거절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 본문은 7절 하반절과 정반대되는 내용으로서 대조를 이룬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반면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요한은 이러한 대조법을 사용하여 수신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누구에게 속하느냐'란 질문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며 동시에 영지주의자들이 방종을 통해 범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누구에게 속하였는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 '마귀의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창3:1-6). 이러한 마귀의 일을 파괴하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죄인을 어둠에서 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5절; 히9:28; 뵤전2:24). 요컨대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죄를 없애고 동시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인 것이다.

====3:9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 본절은 6절의 반복이다. 요한은 1:8,10에서 믿는 자들이 죄를 지을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나 본절에서는 믿는 자들이 범죄치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본절은 6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습관적으로 마귀와 같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낫음이라. - '하나님의 씨'에 대한 견해는 흑자는 말씀 또는 복음이라고 주장한다(Augustine, Dodd). (5)흑자는 성령이라고 주장한다(Calvin).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말씀이 심기워 있음(시119:11; 렘31:33)과 성령께서 내주하심(롬8:11; 고전3:16)은 동시적이고 불가분리적이다. '하나님의 씨' 즉 말씀과 성령이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 거할 때 그 그리스도인은 범죄하지 않게 된다.

====3:10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며 모든 인간들을 낳으신 아버지이시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모든 인간들의 아버지가 아니다. 마귀의 자녀들도 있다(요8:44).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섞여서 살고 다(마13:24-30).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 가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고,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를 닮는다.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 저자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를 판별하는 시금석으로 '의와 사랑'을 제시한다. 의와 사랑이 없는 자는 자기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자임을 드러낸다.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든 아니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든 간에 '온전함'을 의미하며 '사랑'은 타인에 대한 의로움을 뜻한다. 이러한 '의와 사랑'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닮아야 할 하나님의 본성이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수업을 시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라: 왜 어떤 사람들은 점을 치고 토정비결 책을 보게 되는 것일까? 왜 어떤 사람들은 부적이나 네 앞 클로버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일까? 질문과 함께 사람들이 행운을 원하고 그들의 미래를 통제하고 싶은 갈망들이 있는 것을 돌아보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향하신 선하신 계획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어떠한 행운을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믿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하라.

요한이 그의 독자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갖기를 원했다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성경공부를 시작하도록 하라.

학습인도

2. 칠판에 다음과 같이 줄거리 제목을 써라: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맞이함 (요일 2:28--3:10)

1. 거함을 통한 확신 (2:28-29)
2. 그의 사랑 안에서 확신 (3:1-3)
3. 그의 의 안에서 확신 (3:4-10)

확신은 본문 전체에 흐르는 주제임을 제시하라.

3. 반원들이 2:28-29절을 읽게하라. 왜 요한이 그의 독자들을 "자녀들"이라고 말했는지 질문하라. 그 당시 요한은 나이가 매우 많았으며 어쩌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의 독자들을 쉽게 그렇게 부를 수 있었을 것을 제시하라. 그의 "자녀들"에게 말했던 것은 그들이 어떤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는지 질문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확신을 가져다 주는지 반원들과 함께 토론하라.

4. 모든 반원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주목하면서 요일 3:1-3절을 읽게하라. 반원들이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학습공과와

인도자 지침서의 "성경주해" 내용을 참조해서 이 구절들을 설명하라.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자신을 정결케 하는지에 대해서 토론하라. 성도들을 정결한 삶으로 인도하게 될 길들을 함께 살펴보라.

5. 반원 중 한 사람이 요일 3:4-10절을 읽게 하고 나머지 반원들은 그 구절들이 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 지 주목하도록 하라. 그러고 나서 요일 1:8절을 읽어라. 요일 1:8절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음을 지적하라. 요일 3:4, 6, 그리고 9절을 비교하라. 이 구절들은 죄가 생활의 양식이 된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다. 반원들이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죄들을 범하게 되겠지만,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죄에 의해 통치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도록 인도하라. 필요한대로, 학습공과와 인도자 지침서의 "성경주해" 내용을 참조해서 이 구절들을 더 자세히 설명하라.

6. 반원 중 한 사람이 요일 3:10절을 읽게하라. 질문하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식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의를 행하는 자... 그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자.")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도록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라. 그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행동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련된 자인지, 아니면 마귀와 관련된 자인지 드러내 준다는 것이다.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요한이 이 구절의 마지막에서 언급했던 특별히 분별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질문하라. 요한은 그의 독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존재하는 가족 관계를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음을 지적하라.

적용격려

7. 질문하라, 우리의 미래를 확신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이 구절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적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 의지할 수 있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8. 당신의 교회, 혹은 성경공부 그룹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길들에 대해 브레인스토밍하라. 반원들이 의견들을 내어 놓을 때 칠판에 기록하라. 그들이 몇 가지 의견들로 정리 했을 때, 반원들이 어떤 행동을 이번 주에 실천할 것인지 결정하게 하라.

<p>[제 10 과]</p>	<p>N 수준까지 사랑하기</p>
<p>핵심본문 요일 3:11-4:21</p> <p>배경 요일 3:11-4:21</p>	<p>학습주제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필수요소이다.</p> <p>탐구질문 왜 성경은 참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가?</p> <p>학습목표 참 사랑이 나의 삶의 특징이되는 정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당연한 반응임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 가를 파악한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이 부분에서 요한은 교회의 성도들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한다.

요한의 가르침은 앞으로 쪽 행진해서 나아가는 식이 아니라, 독자를 위로 올라가는 나선형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삶을 향한 단계별 교훈 지침을 제공해주기 보다는, 그의 서신 전체에 걸쳐서 그리스도인 삶의 세 개의 주요 주제들을 엮어나간다. 이 서신에 대한 이전의 공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믿음 (Faith) 의 삼겹줄은 순종, 사랑, 그리고 신앙 (Belief)이다.

우리는 순종을 배우고, 그러고 나서 사랑을 배우고, 또 그러고 나서 마침내 신앙으로 옮겨가는 식으로 직선적으로 배우지 않는다. 이는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요한은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식으로 살아질 수도 없다. 매일 순종과 사랑과 신앙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이다. 그것들은 모든 생각, 결정, 그리고 행동에 서로 얽혀 있다. 그렇게 하는동안 위를 향한 그 시위는 그리스도의 총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주요 주제들은 두 개의 줄에 집중되어 있다; 사랑과 신앙.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올바로 믿어야 하는 요구사항들을 강조했다. 우리는 11과에서 (요일 4:1-6, 13-16)에서 참된 신앙에 대한 요한의 가르침을 연구하게 될 것이다. 비록 우리가 이러한 요소들을 나누어서 공부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은 필연적으로 한 요소가 부족하면 다른 요소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 중요성을 깨닫자 마자, 요한은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어야 된다고 독자들에게 되돌아서 교훈하고 있다. 그 나선형 교훈은 계속해서 돌고 돈다.

본문해석

서로 사랑하라 (3:11-18)

====3:11

'사랑할지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가포멘'은 현재형으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사랑이 지속적인 것임을 시사한다. '처음부터'는 문맥상 요한의 수신자들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를 의미한다. 요한은 틀림없이 복음의 본질이 사랑이며(요3:16; 15:12; 눅10:27; 고후13:13) 사랑이 태초의 창조 원리에까지 미친다는 사실(요17:24; 요일4:16)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3:12

저자는 8절과 10절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마귀의 자녀의 모델로 가인을 제시한다. 창세기 4장에 기록된 사건에서는 가인의 살인 동기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가인에 대한 언급(히11:4; 유1:11)을 통하여 추론해보면, 가인은 믿음과 순종과 형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문에서 요한은 다른 어느 성경보다도 분명한 살인의 동기를 제시한다. 그 동기는 동생 아벨의 의로움에 대한 시기이다.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물질적 축복이나 안녕보다는 의로움 자체를 더욱 시기하고 증오한다. 이런 의미에서 가인은 자신의 살인 행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한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었다.

====3:13

전후 문맥상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는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 비유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대립은 아벨-가인, 이삭-이스마엘, 야곱-에서를 통하여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요한은 '미워하거든'에 해당하는 헬라어 '미세이'를 현재 시상으로 사용함으로 암시하고 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롭다는 사실만으로 미워하므로(12절) 양자간의 대립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세상의 증오는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이김에 기초하여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요16:33; 요일4:4; 5:4).

====3:14

본문에서 요한은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서 형제 사랑을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

라, 생명으로 들어간 자의 증거로서 형제 사랑을 논하고 있다. 사랑은 율법의 대강령 이요(마22:34-40), 율법의 완성이요(롬13:10),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최고 표현이다(요13:35; 고전13:13). 그러므로 비록 세상이 영생의 근거는 아닐지라도 형제 사랑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한편 '거하느니라'의 헬라어 '메네이'는 현재형으로 사랑치 아니하는 자의 영적 죽음의 상태가 지속됨을 암시한다.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랑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과거 상태처럼 지속적으로 죽음과 진노 하에 있는 상태이기예(엡 2:2) 사망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사망에 거하고 있는 상태이다.

=====3:15-16

요한은 '사랑하지 않음'의 개념에서 '미워함'의 개념으로 발전시켜 진술하고 있다. 본문은 분명히 12절을 반영한 것으로 세 가지 즉 '사랑하지 않음'과 '미워함' 그리고 '살인'이 동일한 것임을 시사한다. 즉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미워하는 자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이다. 그러나 여기서 요한이 살인자의 회개와 사죄 가능성을 부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예수께서도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의 사죄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이다(눅23:34). 단지 요한은 본문에서 미움이 잠재적 살인이라는 사실, 즉 살인이 미움과 시기에서 비롯 된다는 사실과 살인하는 자의 현재는 영생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요한은 15절에서 미워하는 자의 표본으로서 가인을 내세운 뒤 16절에서 사랑하는 자의 표현으로 그리스도를 언급함으로 자신이 강조하고 있는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 요한은 상반절에서 자기희생적 사랑의 본보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제시함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본받아 자기 희생적 사랑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강조한다(2:6). 이는 예수께서 친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상통하는 것으로(요15:12,13)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해야 할 사랑이 자기 부정임을 시사한다.

=====3:17-18

본절에서 요한은 생활에서 충분히 실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랑의 예로 최소한의 생활조차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요한은 생활이 어려운 형제를 보고도 그의 궁핍함을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 '말과 혀'는 같은 의미로서 실천이 없는 사랑을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행함과 진실함'은 실천하는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즉 '행함'은 사랑의 역동적 측면을 나타내고, '진실함'은 사랑의 질적 측면을 나타낸다. 요한은 본절에서 사랑의 실천을 선언(약2:15-17)함으로써 이제까지 논해온 것, 즉 하나님에게서 난 자마다 의와 사랑이 있어야 함을 요약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4:7-12, 19-21)

=====4:7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 본문은 다음절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와 연결된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근거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는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한다.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시며 모든 사랑의 근원으로서 그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셨다.

이러한 사랑은 단순히 사랑하는 태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 행위를 내포한다 (3:18).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은 물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녀이며 하나님을 아는 자임을 드러낸다. 곧 행위를 동반하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을 아는 자임을 드러내는 기준이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4:8-10

사랑하는 자가 모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다.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앞 절과의 대조를 통해 다시한번 강조하고 있다.

요한은 7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의 근원이심을 밝히는데 이어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심을 선언한다. 즉 이것은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행위들 중 하나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가 사랑임을 시사한다. 요한은 본서에서 사랑을 언급할 때 행위와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다. 이 사실은 수신자들 사이에 존재한 영지주의자들의 이단적인 가르침, 즉 신령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공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신령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나 사실상 그들의 삶에서는 사랑의 행위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사랑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을 현시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신다.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지상 사역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계시되어 사랑의 궁극적인 기원을 이루셨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사랑은 이러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죄를 위한 화목제로 보내심으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속죄 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9절).

=====4:11-12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께서 주신 계명
으로(요13:34,35; 15:12,17)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다. 요한의 이 권면은 당시
사랑의 계명을 평가절하 하는 이단적 교리가 수신자들 사이에 팽배해진 것을 염두에 두
고 한 것이다. 물론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그것이 선택 사항은 아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할 실천
행위이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마땅하다”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영지주의자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보아서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한다. 요한은 이러한 이단자들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반대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과 사랑의 계명을 연결시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을 본
사랑은 없으나 그리스도 자신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는 예수의 말씀과 동일한
것으로(14절; 1:1-3; 요1:18; 12:45; 14:9; 17:24).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요한은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보았다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반격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비록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을지라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행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음을 강조한다. 즉 하나님 품 속에 독생하신 예수께서
자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함
으로 자신들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타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4:19-21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사랑의 삶은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다.

영지주의자들은 공동체 내에서 신비한 지식을 통해 구원을 받고 다른 일원보다 우월하다는 환상에
빠져 타인을 돌보지 않았다. 요한은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게 됨을 강조한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요한이 그의 영적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최초의 성경 구절들 중의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음을 제시하라. 요일 3:11절의 말씀을 가리켜라. 자녀로서 그 구절을 배우는 것은 자녀나 혹은 어른일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 있는 그 개념을 깨닫거나 혹은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라. 오늘 수업은 반원들이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라"를 배우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라.

학습인도

2.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죽음이 무엇인지 아는가 반원들에게 질문하라. 창세기 4:3-10절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이야기 해서 요일 3:12절에 나오는 요한의 가르침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라. 반원들이 요일 3:15절을 읽게하고, 읽는 동안 요한이 살인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는지 주목하게 하라. 왜 요한이 그 둘을 연결시켰는지 반원들과 함께 토론하라.

3. 반원 중 한 사람이 3:16-18절을 읽게하라. 요한은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을 어떻게 말했는지 질문하라. 부모들은 종종 그들의 자녀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녀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대신 지기 원한다는 것을 제시하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써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언급하라. 16절에서 요한은 신자들은 서로 간에 이와 같은 종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지적하라. 요한이 우리가 그러한 종류의 사랑을 기르기 위해 시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의 무엇을 언급했는지 질문하라.

4. 어떤 것을 말하는 것과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욱 쉬운지 질문하라. 요한은 단지 말로만 그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행함으로는 나타내지 않는 것에 대해 그의 독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음을 지적하라. 반원들이 야고보가 이 것에 대해서 진술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질문하라 (약 1-2장에 대한 수업을 살펴보자).

5. 반원 중 한 사람이 요일 4:7-8절을 읽게하라. 반원들에게 왜 요한이 문장 끝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포함시켰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라. 9절을 읽고 참조하라.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음을 지적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을 관찰할 때 사랑이란 진정으로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을 반원들과 함께 토론하라.

6. 10절에서 요한이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에게 등을 돌리고 떨어져 나왔을 때부터 우리의 화목제가 되시는 그의 아들을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다.

7. 반원 중 한 사람이 요일 4:19-21절을 읽게하라. 질문하라, 요한이 20절에서 주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시험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짜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우리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적용격려

8. 각 반원들에게 인덱스 카드를 나누어 주라. "서로 사랑하라"는 구절을 기억하게 하라. 반원들이 지난 몇 주동안 다른 믿음의 동료들에게 보여주었던 사랑의 행동들을 카드 한 쪽에 쓰게 하라. 이제 카드를 뒤집어서 이 번주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라.

<p>[제 11 과]</p>	<p>하나님의 신인동형 아들을 믿음</p>
<p>핵심본문 요일 4:1-6, 13-16a</p> <p>배경 요일 4:1-6, 13-16a</p>	<p>학습주제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이 되셨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필수 요소이다.</p> <p>탐구질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있는 올바른 믿음은 얼마나 중요한가?</p> <p>학습목표 예수님을 하나님의 신인동형 아들로 믿는 것을 확인, 혹은 재확인한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본과의 초점을 이루고 있는 부분은 요한서신의 구조적 특징인 삼중나선 구조의 또 하나의 좋은 예이다. 요한서신은 이 세 개의 주제들이 삼중나선 구조식으로 꼬아져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

10과에서 배웠듯이 그 삼중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 중의 한 줄이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필수요소이다. 이러한 이중적 사랑은 진짜 기독교의 부인할 수 없는, 실수할 수 없는 싸인이다. 요한은 그의 독자들에게 참된 기독교의 절대로 빼어 놓을 수 없는 질로서 사랑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도전했다. 그의 말들은 바울의 유명한 사랑의 장인 고리도전서 13장처럼 그렇게 직접적이다.

그 문맥 속에서 초점이 요한 서신의 또다른 주제로 꼬아져 올라간다. 사랑에 대해 이야기 하는 한 가운데서 그는 갑자기 이야기의 방향을 바꾸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사랑만큼 동등하게 중요한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던 것이다. 신약성경에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한 가장 놀라운 말들로 둘러 쌓여있는 가운데, 독자는 신학적인 논쟁처럼 느낄듯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거짓 신앙의 함정들에 대한 토론으로 갑작스럽게 들어가게 된다. 요한이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는 거짓 신앙 역시 존재할 여지를 남겨 놓지 않는다.

본문해석

거짓 영들에 대한 경고 (4:1-3)

=====4:1

'말지 말고'의 헬라어 '메...피스뉘에테'는 '진실한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의미이다. 이는 '시험하라'와 연결되어 모든 영을 대할 때에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잘 분별하여 받아들여야 할 시사한다. 한편 '시험하라'는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하는 분별력을 가리킨다. 요한은 당시 수신자들 사이에 스스로 영감을 받았다고 자랑하던 이단자들을 영두에 두고 수신자들이 이들을 시험하여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인가를 분별함으로 무조건 따르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다.

'거짓 선지자'는 신약성경에서 '진실한 선지자'를 대적하는 자나(눅 6:26; 뱀후 2:1), 혹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사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마 7:15; 24:11, 24; 행 13:6).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은 종말론적 현상이다(2:18; 막 13:22, Barker).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와 깊은 연관을 맺으며 그리스도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자신들의 거짓된 가르침이나 교리로 미혹하는 자들로서(마 24:11; 살후 2:3; 계 20:10)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유혹한다.

=====4:2-3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 '하나님의 영'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이다. (1) 흑자는 성령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13절; 3:24, Stott). 이 견해에 따르면 본절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증거하심을 의미한다. (2) 흑자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JB, Smalley). 이들은 본절이 앞절과 연관되어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고백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이 두 가지 견해는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지니나 문맥상 후자의 견해가 더 나은 듯하다.

요한은 본문에서 수신자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신자들이 알고 경험했던 영적인 사실들을 잘 지키며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기시키고 있다(13절; 3:16; 5:2).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 본문은 영감을 받았다고 자처하는 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거짓 영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분별하는 기준이다. 그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의 인정 여부이다. 요한 당시 수신자들

가운데에는 영지주의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 요한은 본질에서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를 공격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1:1,2; 3:1; 5:1; 요 1:12-14). 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음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선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암시한다. 즉 그는 완전한 인간이시며 동시에 신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반대로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고 거짓 영에게 지배를 당하는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참된 성령의 도움으로 성육신을 시인하는 것과 거짓 영의 지배를 받아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에는 절대로 중간 지대란 있을 수 없다. 오직 양극만이 존재할 뿐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문맥상 본문은 거짓 영에 의해 지배를 받는 사람들, 즉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세상에 오심을 부인하거나, 그리스도께서 선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요한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종말에 출현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했고(2:18) '이제 벌써' 수신자들 사이에 존재함을 밝힘으로 종말의 긴박성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세상'은 1-6절 사이에 무려 6번이나 나타나며 모두 부정적인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다.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며 통제하는 곳으로 하나님과 그의 뜻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것을 지칭한다.

진리 안에 거하라는 격려 (4:4-6)

=====4:4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 본문은 하나님께 속한 수신자들이 세상을 이긴 이유이다. '세상에 있는 이'는 사단이나 악한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2:13, 14; 3:12; 5:18,19) 그는 하나님에게 소속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을 미혹하며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그들의 영향력은 오직 세상에 속한 자들에 한하며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그 세력을 행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루셨으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 승리에 동참하기 때문이다(6절; 요 16:33; 롬 8:31).

=====4:5-6

'저희'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교훈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킨다. '세상'을 지칭하는 '코스무'는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1) 복음과 반대 되는 사상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요한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상들은 당시에 유행하던 사상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그러한 사상에 미혹된 자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치되는 당시 사상에 탐닉했고 그것에 빠져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려 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가르침을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을 부인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속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한편 '미혹의 영'은 '진리의 영'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이것 역시 사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단의 지배 하에서 거짓 가르침을 전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하는 기준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청송하는 여부에 달려있다.

올바른 신앙의 중요성 (4:13-16a)

=====4:13-14

그리스도인들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다(1-3절; 고전 12:3).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으로 신비한 지식을 깨달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나 요한은 이에 대해 반박하면서 성령을 공유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상호간의 내주를 경험하며 확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이며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교제함으로써 상호간의 내주를 확신한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과의 이러한 교제, 즉 상호간의 내주(內住)는 사랑하는 것과 믿는 것을 가리킨다(3:24; 요 3:5,6; 갈 5:6).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을 신비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죄보다는 무지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요한은 육체로 오신 예수께서 구주이시며 그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선언함으로써 영지주의자들을 반박하고 있다(2,10절; 1:7; 2:2; 5:6). 성령을 수여받은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12절)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주되신 예수를 알게 되며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깊이를 더해 갈 뿐만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요15:26).

=====4:15-16a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 '누구든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상호간의 내주가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임을 시사한다.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을 영두에 둔 표현이다. 영지주의자들은 신비한 지식을 소유한 자신들만이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요한은 단 하나의 전제 조건,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선언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상호간의 내주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과 인간 상호간의 내주를 가능하게 하는 믿음과 순종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13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문자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사랑을'이란 의미이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킨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1. 질문하라, 사람이 믿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가? 사람이 믿는 것은 왜 중요한가? 옛 격언을 인용하라, "당신이 어떤 것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무 것이나 위해 살게 될 것이다." 질문하라, 그 격언에 잘못된 것이 있는가? (우리가 위해서 살아야 할 "어떤 것"은 반드시 옳은 것이어야 한다). 요한 1서로부터 시작한 각 과목을 간략하게 훑어 훑으로써 단원 전체의 내용을 연결 시켜라. 반원들에게 요한 서신을 공부하는 것의 목적을 상기시키고, 그 중의 하나가 올바른 신앙의 중요성을 기억하게 하라.

학습인도

2. 학습공과의 참고에 나오는 "영지주의"에 대한 내용과 인도자 지침서의 "성경주해" 내용을 복습하는 것으로 학습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라.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인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라.

3. 당신이 요일 4:1-6절을 읽을 때 반원들이 성경을 보면서 따라오도록 하라. 당신이 본문을 읽기 전에, 반원들이 거짓 신앙들을 가리키는 것들을 주목하도록 말하라 (거짓 예언자들, 적그리스도). 성경을 다 읽은 뒤에 질문하라: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영광 거짓 영들 사이를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4.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주장하는 것들과 진술하는 것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제목 밑에 있는 학습공과의 내용을 사용하도록 하라. 반원 중 4명을 골라서 요일 1:1-4; 2:22-25; 3:23; 요이 7절을 찾게 하라. 질문하라, 이 구절들은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성경을 다 읽은 뒤에 반원들의 대답을 들어보라.

5. 반원 중 한 사람이 요일 4:13-16a를 읽게 하라. 질문하라, 이 구절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어서 다음 질문을 하라, 성령의 선물과 하나님의 내주하심은 신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6. 영지주의자들은 예수께서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을 부인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질문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인성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다음의 일들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인성에 성육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 우리가 겪는 일들을 알 수 있도록 하신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지에 대한 실재의 본을 제공해주실 수 있다.)

적용격려

7. 시간이 허락되면 학습공과 끝 부분에 나오는 질문들 중 몇 개를 사용하여 토론하라.

8.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며 우리 의 삶 속에 있는 그의 내주하심에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거짓되고 왜곡된 가르침들을 분별하고 거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기도함으로 수업을 마치라.

[제 12 과]	사랑과 믿음의 이치로 사는 삶
핵심본문 요한 1서 5장 배경 요한 1서 5장	학습주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 이웃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라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요소들은 우리를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인도한다. 탐구질문 인생의 도전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항상 당당하고 자신 있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학습목표 신앙생활의 풍부하고 다양한 본질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하고 재확인하기

성경주해

배경이해

요한의 독특한 문체는 당당한 어조로 끝나는 본 서신의 결론 부분에 또 다시 나타난다.

이 짧은 편지의 마지막 장을 통해 독자들은 요한이 신실한 신앙인의 특성이라고 강하게 주장한 세가지 요소들에 대해 알게 된다. 세가지 요소들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 타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다.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은 그의 최종적인 생각을 담고 있다.

첫째로, 본 서신의 첫 머리에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중요성은 본문에서도 계속 나온다(요한 1서 5장 3절을 보라).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진실성을 나타내주는 특징이라고 주장한다.

참된 기독교인의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이다(5:2). 서신 전반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가치가 신앙인의 삶을 결정짓는데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요한은 신앙의 기본 요소인 사랑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강력한

주장으로 편지를 끝맺었다.

다른 두 가지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세번째이자 마지막 요소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올바른 믿음(5장 10절을 보라)이다. 바른 믿음은 순종과 사랑이라는 다른 두 요소와 서로 얽혀서 신앙생활이라는 천을 공교히 짠다.

그러나, 요한 1서 5장은 앞의 4장의 서신에 대한 단순한 요약이 아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극적인승리의 말로 끝난다. 요한은 독자들이 참된 신앙인의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초대하고 있다. 세가지 요소는 신앙인의 삶을 정의 할 뿐 아니라 바로 그 삶의 성공을 결정 짓는다.

본문해석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세가지 요소(5:1-5)

5:1. 믿음은 신앙생활의 근간이다.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간으로의 인성과 하나님의 아들로써의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인정하는 바른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한다. “믿는다”는 동사를 보면 요한은 이 말을 서신의 다른 부분(3:23; 4:1, 16) 뿐만 아니라 본문(5:1,5,10,13)에서도 폭넓게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2.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 분의 계명을 지키는 증거인 타인에 대한 사랑은 승리하는 신앙인의 삶에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될 조건이다.

5:3.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므로 그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 동시에,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 필요한 곳에 전해진다. 요한은 5장 1절로 3절에서 효과적인 기독교 신앙의 삼겹줄인 순종, 사랑, 믿음을 간략하게 요약했다. 비록 순종을 명하고 있지만, 요한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거운 짐”이 아님을 독자들에게 재차 확인해 주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이야말로 좋은 소식이다!

5:4-5. 요한이 순종, 사랑, 그리고 믿음이라는 구불구불한 나선형 계단의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그는 참된 기독교에 관한 단순한 서술 이상의 경지에 오를 수 있었다.. 이러한 발전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정상에 오른 기쁨을 맛 볼 수 있게 한다. 요한은 이 두 절에서 4번이나 “승리”라는 단어의 헬라어 형태를 사용했다. 기본 단어는 그리스신화에서 승리의 여신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 이름은 오늘날 스포츠를 즐기는 모든 문화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영어로는 Nike라고 한다. 현재와 미래 할 것 없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강조한다. 참된 기독교는 곧 승리하는 삶, 그 자체 이다.

간증(5:6-13)

5:6-9. 요한은 물과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증거하는 상징적인 요소로 소개하고 있다.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서 신학자들과 성경 주석가들은 물과 피에 관한 서로 다른 해석들을 내놓았다.

일반적으로, 세가지 중요한 견해가 있다. 첫째는 물과 피가 교회 예식중 침례와 주의 만찬을 행하는것과 연관이 있다는 견해이다. 이렇게 보면, 침례시에 사용하는 물과 만찬에서 사용되는 보혈은 구속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사랑을 나타낸다.

두번째로 공통적인 의견은 물과 피가 처형 당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찢은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요한복음 19:34). 요한 복음은 이 폭력적인 사건을 예수님의 몸이 찔림을 당할 것(스가랴서 12:10)이라는 성경 예언의 성취로 해석하고 있다. 이 물과 피를 쏟으신 사건은 마치 출산을 연상시키는, 심금을 울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출산은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만 가능한 새로운 탄생이다.

세번째이며 가장 적합한 설명은 앞의 견해들과 비슷하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한 영적 전투를 다루고 있는 요한 1서의 문맥을 살펴보면 물과 피는 우리 주님의 침례와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주장은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생애가 역사적으로 정확한 사실임을 확실히 말하고 있다.

성령을 물과 피에 관련된 부가적인 증거로서 소개하는 것은 논쟁을 더 가중시킨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임을 증거하는 삼위일체(론) 까지 증거로 제시하며 예수그리스도의 임재를 증거하는 상징적 요소로 성령님이 포함 되어있음을 밝히려고 한다.King James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하늘에서는, 아버지, 말씀, 그리고 성령 이 세 위는 하나이다. 또한 땅에서는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5:7-8). 원문에 첨가된 이 구절은 초기 사본들에는 나오지 않는다.

5장 7절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님의 임재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님께서 확증하시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물, 피 그리고 성령님이라는 세가지 증거는 구약의 율법에서 재판할 때 반드시 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도록 하는 조건과도 맞아 떨어진다.(신명기 19:15)

5:10-13. . 본문은 신앙인의 마음자세 또한 거룩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선언함으로 증거라는 개념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든다. 물, 예수님의 보혈, 성령, 그리고 이제 성도를 통해 입증된 하나님의 증거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을 대항하는 보다 더 강력한 힘이다.

참된 신앙인은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은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다. 요한의 기록에서는 영생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은 끝이 없는 영원한 것이다(요한복음 3:16). 하지만, 영생의 특성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영생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활기차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요한은 이런 현재의 삶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확실히 말해준다.*요한 1서 5:4)

기도의 확신(확신있는 기도)(5:14-17)

5:14-15 승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 중 하나는 기도 응답이다. 하나님은 “ 곧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무엇이든 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조건절이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에 관한 앞의 언급을 생각해 볼 때, 성도의 기도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내재로부터 썩어 터야만 한다. 확실한 기도 응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하는 삶에서부터 자라나오는 것이다.

15:16-17. 요한이 다음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 생활의 중요성이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다른 신자들과 연합을 이룬다. 이제, 본문에서 독자는 요한이 그리스도를 잘 못 믿는 사람들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 염려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된다.

본문에 나오는 기도의 가르침은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는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음을 인정했다. 영생에 관해 다루고 있는 바로 이 문장에서 그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는 곧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죄를 뜻한다. 기도를 통해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죄란 비록 구원자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진실한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유지 하고 있기는 하지만 순종하기를 그분께 망설이는 성도의 죄를 말하는 것이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에 대해 기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본문에만 나오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다른 경우들에서도,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신명기 3:26, 예레미야 7:16; 11:14; 14:11; 요한복음 17:9) 요한 1서에서, 저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편지를 쓴 목적 중 하나가 교회를 강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주안점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죄, 즉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닌 여타의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5:18-21)

5:18-20. 본 서신은 확증하는 말로 끝을 맺고 있다. 신자라면 본문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안다” 성도는 죄를 범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세상이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또한 5:15절에 나오는 “우리는 안다”를 보라)

특별한 지식을 주창했던 영지주의자들이 초대교회의 적중 하나였다는 점을 생각해서 요한은 기독교신앙과 그 확실성에 대해 정확한 결론을 내린다.

5:21. 마지막 경고의 말을 통해, 저자는 성도들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좇는 우상숭배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지킬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우선, 요한 1서의 구조를 설명하는 방법인 삼중 나선형(학습용 공과의 요한 서신들: 참된 기독교의 시험(? 검증?) 을 보라)에 관한 설명을 준비해 놓는다.
오늘의 본문이 사랑, 믿음, 그리고 순종이라는 세 가닥의 줄로 서로 얽힌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유의 하면서 삼중 나선형에 관한 설명으로 수업을 시작한다.
2. 학생들에게 왜 우리가 목표와 목적을 정하는지를 물어보라. 답변이 없다면, 목표와 목적 자체가 성공을 재는 척도임을 가르쳐 준다. 오늘 공부하는 과의 첫 절에서 우리는 확신에 찬 승리하는 생활로 우리를 인도하는 기준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학습인도

3. 요한 1서 5:1-5로 돌아가서, 당신이 읽을 때 학생들도 함께 읽도록 한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의 사랑(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을 재는 기준을 삼으시는지 찾아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명령들을 열거해 보라고 한다. 우리는 얼마나 이 명령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4. 오늘의 본문 중 6절, 8절, 그리고 16절이 특히 성경 주석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이다. 이 구절들을 공부 할 때, 학습용 공과의 내용과 교사용 지침서의 “성경주해”를 사용해 가능한 의미들을 제시한다. 수업에 도움이 되도록 이 구절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그러나 하나님의 성자에 대한 증언, 순종하는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확신과 같이 좀 더 폭 넓은 말씀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만한 질문들은 되도록 피하라.

5. 한 사람이 5:6-13을 읽음으로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바로 그 증언” 을 듣게한다. 다 읽은 후 의견을 말해보게 한다. 11절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6. 5장 14-15을 읽게한다. 빌립보서 4:6을 보게 한 후 요한 1서 5:14-15과 비교해 보도록 한다. 이 두 본문이 어떻게 이렇게도 비슷할 수 있는가? 이 두 본문은 기도에 대해 무엇을 우리에게 제시하는가?

7. 5:16-17을 읽는다. 본문의 학습용 공과의 내용과 인도자용 지침서의 “성경 주해”를 사용하여 본문의 의미를 설명한다.

8. 한 사람이 5:18-21을 읽는 동안 다른 학생들은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는 안다”를 읽는다(5:18, 19, 20).

답변들을 나열해서 기록한다. 15절 또한 주목해서 보게 하고, 그것을 목록에 첨가한다. 이 구절들이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는 방법들을 요약해 보라고 한다(기도 응답 기도, 악과 악한 자에게로부터 보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등)

적용격려

9. 우리가 눈속을 걸으면, 뒤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발자국). 인생여정에서 신앙인은 어떤 발자국을 뒤에 남기는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증거로 무엇을 남기는가?(답변을 허용한다). 학습용 공과의 5번 질문을 참고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힘을 주셔서 그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입증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로 수업을 마친다.

<p>[제 13 과]</p>	<p>하나님의 사역을 지혜롭고 풍성하게 후원하라</p>
<p>핵심본문 요한 2서 1-2,7-11; 요한 3서 1-11</p> <p>배경 요한 2서~3서</p>	<p>학습주제 성도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지혜롭게 참여하고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p> <p>탐구질문 당신은 복음 전파 사역에 얼마나 지혜롭게 참여하며 넉넉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p> <p>학습목표 복음전파 사역을 어떤 방식으로 후원할 지를 결정한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요한 2서와 3서로 알려진 서신서들을 통해 우리는 에베소 인근에 위치한 사도요한의 가정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도들의 삶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엿 볼 수 있다. 이 편지들은 요한 1서에 나오는 삶에 관한 가르침들을 이어서 말하고 있다. 요한 서신을 읽는 것은 초기 신자들의 이야기를 배우는 것이며, 그들의 고뇌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들의 신앙에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요한 2서의 내용은 요한 1서의 그것과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요한 2서의 본문이 그저 단순한 앞의 서신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인정하건대 본 서신은 오랜 동역자들에게는 비교할만한 쟁점들을 불러일으키지만 일반적인 개념들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저자와 수신인의 정체가 드러나는 특성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요한 1서와 2서의 유사점들은 서로 상반되지 않는다. 요한 2서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에 대한 독창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한편, 요한 3서는 다른 두 서신 들과 분명히 구분되는 뚜렷한 점들을 갖고 있다. 본 서는 다른 두 서신들보다 더 개인적이며, 특정한 수신인들과 또 다른 두 명의 이름이 나온다. 특히, 가이오라는

수신인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신약성경에서는 드문 일이다. 바울의 편지는 디모데와 디도에겐 쓴 것으로 되어있지만, 서신의 특성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교회 전체를 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개인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신약의 유일한 서신은 빌레몬서이다.

요한 3서의 본론에 언급된 2명의 개인들은 교회 안의 상반된 관점이 존재했음을 암시해 준다. 데메트리우스는 선교사역을 후원했지만, 디오드레베는 복음 사역을 후원하는데 반대했다. 특정 개인들을 거론하는 드문 성격을 갖고 있긴 하지만, 요한 3서는 형식상 요한 2서와 유사하다.

편지의 내용과 형식의 연관성으로 볼 때, 한 사람의 작가가 3개의 서신을 썼다고 보여진다. 아직, 우리는 이 접합제 시멘트가 그들이 쓰여진 순서 인 것처럼 신약 서신서들의 목록 순서에 묶이지 않아야 한다. 요한 3서가 이후 정경으로 승인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반면, 요한 2서는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견고히 하기 위해 쓰여진 세번째의 서신이다.

본문 해석

인사(요한 2서 1-2)

요한 2서 1. 인사말은 1세기의 전형적인 문학적 표현 방식을 쓰고 있다. 인사 방법은 다음의 순서를 충실히 지키고 있다. 편지를 쓰는 사람에 관한 소개, 수신인의 이름, 그리고 인사의 순서이다. 이 신약의 서신은 아마 원래는 한 장의 파피루스에 씌어졌고 인편으로 교회에 배달 되었을 것이다.

저자는 그 자신을 “장로” 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이 단어가 단지 나이 많은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대단히 존경받는 지도자를 나타내는 의미도 갖고 있다.

수신인은 “선택받은 여성과 그녀의 자녀들”이다. 이 “선택받은 여성”을 한 개인으로 보는 것도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심중팔구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교회이다.

아마도 이 “선택받은 여성”은 요한 1서가 보내졌던 바로 그 교회 일 것이다. 그리스어로 “여성”이라는 단어는 “주님”이라는 말로 자주 번역 되는 단어의 여성형 이다(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라). 만약 “선택받은 여성”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후에 나오는 “그녀의 자녀들”은 그 교회의 성도들, 또는 어쩌면 그 교회가 낳은 또 다른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요한 2서 2절. 그 장로는 그 교회를 “진리안에서” 사랑했다(요한 2서 1절) 그리고 “진리 때문에” 교회를 사랑했다. “진리”라는 개념은 최고의 진실을 말한다. 최고의 그리고 최상의 진실은 그리스도이다. 요한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빌립보서 4장 7절을 보라)라고 썼던 그 같은 방식으로 “진리안에서”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

교회가 직면했던 싸움은 “많은 미혹하는 자들”(요한2서 7절)이 나와서 성도의 교제를 무시하고 신실한 성도들을 미혹하여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었다. 이런 배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았다. 그들의 영지주의적인 철학은 기독교의 가르침과는 상반되는 가장 극단적인 생각이었다.

이 기독교 공동체 안의 이런 총체적인 사랑은 내재하는 진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장로들은 교회가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진리 그 자체를 장려하는 것을 추구했다.

문제 (요한 2서 7-9)

요한 2서 7. 이 구절은 서신의 흐름이 교회에 대한 칭찬에서 교회안의 문제들에 대한 비통함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장로는 서신의 전반부에서 “너의 자녀중에 진리에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요한 2서 4). 그러나 서신의 후반부에 그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탄식하고 있다. 이 속이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역행하는 사람들이었다. 요한의 문체의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자면, 그들은 “적그리스도들”이었다(요한 1서 2:18; 4:3)

요한 2:8-9. 영지주의의 성향은 그 신봉자들이 교회의 지식을 능가하는 특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었다. 장로는 인간이 깊은 내면의 세계에 이르기 위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간과하고서도 발전할 수 있다는 잘못된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에 복종함으로 그리스도안에 거해야만 하며, 결코 그분을 앞서 가려고 해서는 안된다.

사역을 돕는 지혜(요한 2서 10-11)

초대교회 시대의 선교 사역이라는 것은 친절한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먹을 것, 머물 곳, 그리고 다음 여행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여행하는 것을 의미했다. 거짓된 가르침들이 횡행하는 상황에서, 장로는 교회가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지혜롭게 대처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집”이라는 말은 한 성도의 가정 또는 교회가 모이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말씀이 주는 교훈은 동일하다. 바로 손님을 환대할 때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성도로써 분명히 해야 하는 일이다(롬 12:13; 벧전 4:9-10). 예수님께서도 신자는 의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 중 하나로서 나그네, 심지어는 지극히 작은 자까지도 대접할 것을 말씀하셨다(마 25:34-36,40). 장로는 이런 행위를 폄하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을 지혜롭게 접대할 것을 강력히 충고하고 있다. 이러한 안목이 없으면, 복음전파 사역을 도우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복음을 역행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장 12절에서 요한복음(요 21:25)의 결론에서와 동일하게 저자가 해야 할 말이 아직 많다고 언급하고 있음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 그는 성도들과 직접 대면하게 될 때를 고대했다. 그는 “선태받은 자매”의 자녀가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 자녀”에게 보내는 안부를 전했다(요2서:1). 그 두 교회는 요한의 공동체 안에서 친척 관계에 있었다.

복음의 환희(요3서 1-4)

요한 3서 1. 가이오라는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추측해보는 것은 헛된 일인데 그 이유는 당시에는 가이오가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그가 요한의 교회의 교인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요한 3:2-4. 비록 본 서신이 당시의 세속적인 편지의 형식을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편지가 담고있는 영적인 성격은 그 장로가 가이오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이 분명하다.

장로는 그의 친구가 “진리안에서 충성되이 행한다”는 말을 듣고 기뻐했다(요한 2서2절을 보라). “많은 미혹하는자들”(요한 2서 7절)과 달리 가이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했다.

가이오의 신앙이 강해졌다는 좋은 소식은 가이오의 참된 믿음을 경험하고 지켜 본 “어떤 형제들”의 보고를 통해 장로에게 전해졌다. 이 “형제들”은 아마도 요한 2서와 3서에 언급된 선교사들중 일부였을 것이다.

사역을 지원하는 관대함(요한 3서 5-8)

요한3서 5-6. 장로는 가이오의 “진리안에서 충성되이 행함”에 박수를 보냄으로 그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확실히 보여주었다(요한3서 3절). 가이오는 모르는 형제들을 따듯이 맞이하는 예의 바른 태도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입증해 보였다.

선교사들은 여행에 필요한 물자와 숙박 장소를 성도들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요한 2서 10-11절

을 보라). 가이오는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선교사들을 따뜻하게 환영했다. 심지어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풍성하게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다.

요한 3서 7-8. 불신자들이 선교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받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받아들이다의 의미도 될 수 있다. 이것은 선교사들이 불신자들에게서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음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들이 후원을 거절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어쨌거나 이러한 행동은 선교사들이 불신자들의 지원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전도대상자들에게서 후원을 받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살전 2:9; 고후 12:14-17을 보라).

교회 내부로 부터의 반대 (요한 3서 9-11절)

장로는 디오드레베를 따르지 말 것과 그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 라고 가이오를 격려하고 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장로가 교회들에게 앞서 한 편지를 썼는데 ,디오드레베가 교회로 하여금 장로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했다는 것을 내용을 보아 알 수 있다.

디오드레베는 교회안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선교사역을 후원하는 일에 반대했다. 디오드레베가 “첫째가 되는 것”을 사랑 했다는 장로의 표현은 복음 사역을 확장하는 대신 디오드레베가 믿음과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 열기 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을 대표 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장로는 가이오에게 디오드레베의 마음을 본받지 말라고 경고 하고 있다. 디오드레베의 신앙과 행동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학생들에게 남북전쟁의 병사들이 고향의 가족들에게 쓴 편지에 대해 읽었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다. 편지는 매우 개인적인 내용이었으며 종종 미사여구가 사용 되었다는 점을 말해 준다.(더 자세한 내용은“ 교수 계획- 다양한 학습 활동” 에 있는 단계 2를 보라). 본 편지에 나타난 요한의 인사가 요한 2서의 인사와 비슷하다는 점을 주목한다. 요한2서 1-2을 읽고 “ 택하심을 입은 부녀”가 누구인가를 알아본다. 학습용 공과의 “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교회 또한 사랑하게 될 것이다(요한 2서 1-2)” 와 인도자 지침서에 있는 본 문에 관한 “성경주해” 를 사용한다.

학습인도

2 학생들에게 학습용 공과와 인도자 지침서 11과의 내용을 참고하여 요한이 영지주의에 대해 쓴 글의 맥락을 주지시킨다. 당신이 요한 2서 7-10을 읽을 때 학생들이 문맥을 통해 증거를 찾아 보도록 한다. 질문:

1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믿었는가?(그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다. 11과에 있는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짧은 글을 보라.)

1 영지주의를 반박하는 것이 요한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는가? (13과에 있는 “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교회 또한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제목의 글의 두번째 단락을 보라.)

1 예수님의 인성이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실이었고 그의 지상 사역은 우리가 따라야 할 좋은 예를 보여준다.)

3 학습용 공과의 “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교회 또한 사랑하게 될 것이다(요한 2서 1-2)”를 인용하여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에 관해 간략히 소개한다.

4 요한 3서 1-11을 읽고 본 서신의 목적을 찾아보게 한다. 요한은 가이오와 그의 교회의 믿음에 대해 확언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들에게 무언가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5 요한 3서 8절을 다시 참고하라. 선교사 후원에 대해 요한이 말하는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를 물어본다. 당시는 선교 후원을 통해 교회의 사역이 다양해지고 교회 밖으로 확대되고 있었던 시기였음을 말해준다.

6 요한 3서 9-11을 읽고 요한과 가이오의 교회가 대응하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내도록 한다. 가이오가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어떻게 마태복음 28:19-20을 사용했을까? 를 물어본다.

적용격려

7. 학생들로 하여금 당신의 교회가 선교에 참여하고 있거나 선교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는 방법들을 가능한 많이 열거해 보도록 한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한 선교사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그 선교사들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할 시간을 준다.

선교팀에 참여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고 짧은 간증을 하도록 한다.

8. 당신의 교회가 선교사역과 선교사 후원에 얼마나 더 관대해져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 보도록 유도한다.

9. 학습용공과의 짧은 글 “ 학습적용”을 참고한다. 각 항목을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한다.

10. 하나님께서 멀거나 가깝거나를 막론하고 선교지에 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교회가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떠나서 더 많은 선교 사역을 후원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로 모임을 마친다.